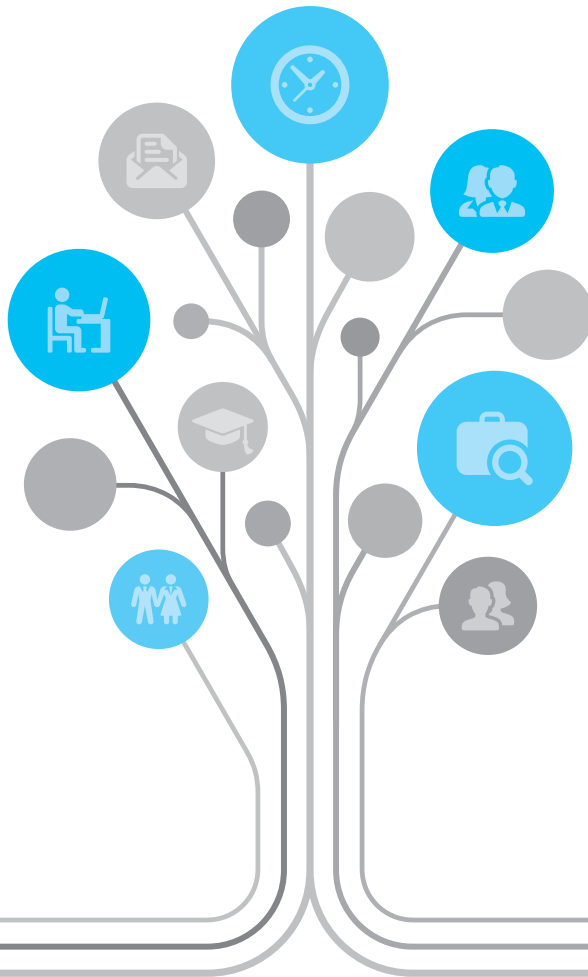


채용수기공보 우수 사례집

2016.12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목차

I

시간선택제 일자리

1. 두 번째 스무살에 일어난 기적 8
2. 애사심을 만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12
3. 나의 삶을 바꿔준 시간선택제 17
4. 경력단절, 불안이 아닌 재도약을 위한 발돋움 23
5. 내겐 너무나 소중한 두 마리 토끼!! 27
6. 풍성한 삶의 울림소리 32

II

직무능력중심 채용

1. NCS 채용, 원석을 캐내는 과정 38
2. Realized the Unreality, 난 NCS로 인정받았다 42
3. 평생의 커리어 가이드, NCS 47
4. 불안감에서 자신감으로!
Never Consider Surrendering(절대 포기하지마) 52
5. 'Must'를 'Want'로 바꾸는 힘 56
6.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고,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면,
못 이룰 일은 없다 61
7. 행복이의 선물 66
8.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71

III

고졸채용

1. 내 나이 열아홉, 대학교를 졸업하다 76
2. '고졸'이란 아이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방법 82
3.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다 87
4. 열아홉, 앞으로의 경험이 더 많은 나이 92
5. 과감하게 선택하자, 모든 것을 쏟아 붓자 97
6. 펄떡이는 물고기 처럼 102
7. 네. 저의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107
8. 진흙 속에서 피는 꽃 112

IV

청년인턴

1. 취업, 어렵다. 청년인턴은 아니다! 118
2. 나무 심던 청년인턴, 화폐를 만들게 되다 123
3. 청년인턴, 어둠속 나침반이 되어주다 128
4. 청년인턴으로 삶의 큰 밑그림을 그리다 133
5. 막무가내 신입 인턴이 상업운전 유공직원이 되기까지 138
6. 39,800원, 이○○입니다 143
7. 나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활용기 147
8. 청년인턴 5개월, 非전공생의 금융맨 거듭나기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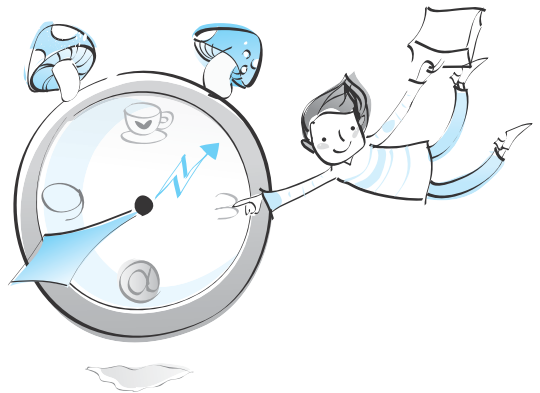
V

지역인재 채용

1. 취업이라는 열매를 만든 물, 공공기관 지방이전 156
2. 모두 발맞춰 앞으로, 지역인재의 성장은 이제 시작 161
3. 나는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냈다 166

I

시간선택제 일자리



1

두 번째 스무살에 일어난 기적

윤○○/국민건강보험공단

솔직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 나는 단순하게 학창 시절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취업준비 잘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괜찮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다.

하지만 2009년 12월, 세 살짜리 딸을 키우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에 근무하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주재원 발령을 받은 뒤 내 인생은 나의 의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5년째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당시 병행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박사과정도 간신히 수료한 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Irvine)이라는 작은 도시로 이주했다.

2014년 2월 말, 남편은 부러워하는 미국 생활이었지만 개인적인 성장 측면에서는 답답하고도 정체된 시간이었던 4년 2개월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나는 한국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어느덧 8살이 된 큰딸은 한국말이 서툴러 한국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미국에서 낳은 4살짜리 둘째 딸은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없어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현실과는 상관없이, 아니 현실과는 정반대로 내 마음속에는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 갔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도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의 큰 아이는 멀쩡히 회사에 다니던 직장 맘들도 육아휴직을 낸다는 공포의 ‘초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 친정 부모님도 몸이 많이 아프셔서 내가 만일 취업한다

고 해도 아이들을 돌봐 줄 사람조차 없었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 뒤치다꺼리와 남편 내조에서 벗어나 ‘나’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그렇게 지내던 2014년 10월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낸 후 집에서 신문을 읽다가 나는 정말로 우연히 ‘2014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특히 채용공고 중 ‘시간선택제 전형’이 눈에 띄었는데 하루 4시간 일하는 조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래! 8시간 근무까지는 무리더라도 아이들을 교육기관에 보낸 후 4시간 정도는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치며 가슴 졸이는 두 달여의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드디어 시간선택제 전형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5년 1월 한 달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4주간의 합숙교육을 마친 후, 드디어 2015년 2월 1일자로 나는 송파지사 징수부로 발령받게 되었다. 나는 10시부터 3시까지 일하는 B형 근무를 신청했고 9시에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낸 후 출근하여 4시간 동안 일하고 3시에 퇴근한 후 유치원과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을 끝낸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지금까지 약 2년째 해오고 있다.

그러니 나의 근무만족도는 당연히 ‘최고’이다. 무엇보다 하루 4시간만 일해도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서 출근하고 아이들이 하교할 때 쯤 퇴근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더구나 정규직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음은 물론, 보수나 교육, 복지 등에 있어서도 전일제 직원들과 전혀 차별이 없고, 단시간 근로의 취지에 맞게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 수준의 업무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하며 근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업무생산성 측면에도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정책 위주의 ‘본부’ 업무와 달리, 對민원 접점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지사’ 업무는 전화 상담이나 내방 민원 처리 등의 업무가 많다. 그러다 보니 지사 직원들은 본인 고유의 업무 이외에도 상당량의 전화 및 대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나는 단시간 근로를 하는 관계로 고유 업무를 적

게 받은 대신 최대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많이 소화하여 전일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 실제로 내가 전화 및 대면 상담업무를 많이 처리할수록 팀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 나에게 수시로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나도 상담업무의 전면에 나서다 보니 매뉴얼로 익히는 것보다 업무습득이 훨씬 빠르고 정수부 업무 이외에 건강보험업무를 전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애로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시간 내에 맡은 업무를 끝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있고, 현재로서는 전일제 근로로의 전환 가능성도 완전히 막혀 있어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나도 전일제 일 자리를 갖고 싶은데 아직은 그 가능성이 요원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나의 경우는 2년 동안 직무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갑자기 부서 내의 전일제 근로자가 사정상 일을 그만 두게 되면 정기인사가 있을 때까지 일단 단시간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맡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단시간 근로자라 이런 대우를 만나 하는 생각에 약간 섭섭했던 것도 사실이다.


끝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자면 국가는 먼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을 위주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으로는 장애인의무고용제 처럼 아예 시간선택제 일자리 비율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각종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공단을 예로 들자면 나는 건강보험공단의 제1기 ‘채용형’ 단시간 근로자인데 우리 공단의 1년 공채규모가 500여 명을 상회하는 데 반하여, 단시간 근로자는 매년 딱 24명만 채용한다. 다른 공공기관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있어도 한국전력 같이 규모가 큰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은 거의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에게 전일제 일자리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기 바란다. 어차피 시간이 흘러 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들은 전일제 일자리

를 찾게 될 것이므로 그동안 숙련성을 확보한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전환시험이나 인사고과 등의 합리적 검증 과정을 거쳐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서로에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원래 나의 오랜 꿈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조직 구성원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이화여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 동안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또한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어를 배우고 꾸준히 토익시험에 응시함은 물론, 내 전공 분야의 국내외 현안과 이슈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미래를 준비했다. 그리고 귀국한 후 나이 마흔이 다되어 기적처럼 다시 사회에서 일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일찌기 서산대사는 ‘눈 덮인 길을 갈 때에는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은 훗날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나니’라고 말했다. 나는 건강보험공단의 제1기 ‘채용형’ 단시간 근로자이다. 일단 제도를 도입해 놓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경영진 앞에서 내가 잘해야 이 제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책임감이 무겁다. 그리고 나는 두 딸의 엄마이다. 훗날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여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힘차게 수화기를 든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애사심을 만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국민건강보험공단

학업 등의 고민을 해결한 시간선택제

근속기간이 만 3년 되고 나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특히 노인보건 및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열정 하나로 무작정 이 학교, 저 학교 등에 원서를 제출하였고, 서울 소재의 한 학교에 보건정책관리학 박사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기는 했으나, 주간 수업이 대부분인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013년 첫 해는 반차를 써가면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단 하루도 휴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주말 수업을 들어가면서 힘들게 1년을 마쳤고, 저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학과의 커리큘럼이 대부분 주간 수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휴가가 부족하여 한 학기는 휴학을 하였습니다. 2014년 2학기부터 학업을 다시 시작하였고, 남은 휴가를 모두 해당 학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겨우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학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공단에서도 탄력근무제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점에서 완전하게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원 수업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수업은 9시부터 12시까지 이루어지고, 오후 수업은 13시부터 17시까지 이루어지며, 야간수업은 18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반차를 신청하여도 14시에 퇴근하여 13시에 시작하는 수업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야간수업의 경우에도 조퇴를 하거나 반차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17시에 퇴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휴가 신청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휴가를 휴식 및 여가생활에 이용할 수 있었고,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또 다시 환류하여 업무집중도를 향상시켰고, 업무 능력 및 성과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가 내게 준 선물: 근무만족도, 업무생산성 향상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한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일상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첫째, 교통체증으로 시달리던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의 1시간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35분 정도로 줄었고, 이것은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둘째, 학업을 하면서 배운 이론 및 정책적 의의 등을 이해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상승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그저 상급기관 및 상급부서에서 시킨 업무로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 의의를 상기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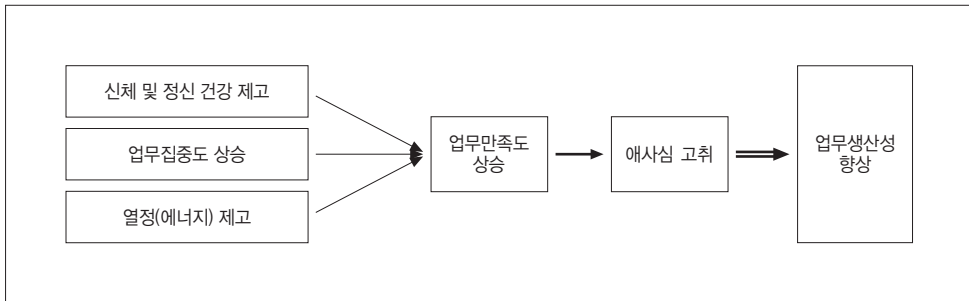
셋째, 업무 및 학업을 병행하면서 에너지가 고갈되어 궁극적으로 burn-out될 수 있었던 상황을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는 업무대로, 학업은 학업대로 모두 실패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저에게 애사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저는 악성민원, 이의신청 등으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공공기관 중 하위권에 속하는 적은 급여를 받음으로써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낮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학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좀 더 나은 생활환경 등을 제공해 준 회사에 대하여 점점 애사심은 커지

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커져 저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보다 좋은 곳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애사심은 제가 더욱 업무에 열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이전의 제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수의 간담회 개최, 신규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주요 업무를 열정적으로 처리해왔고, 최근에는 고시 해설집을 별도로 편찬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무가 저를 변화시켜 준 큰 요인 중 하나임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무의 효과



시간선택제 근무의 애로사항 및 한계

시간선택제의 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술한 장점 외에도 무수히 많을 수 있으며,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닌 개인이 시간을 조율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장벽들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상당히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진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는 데 눈치를 전혀 안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상당히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가진 곳이라면 어

떨까라고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를 가진 곳은 시간선택제 근무 제도가 있다고 해도 자유롭게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감사대상이 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선택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절차를 정해 두었으며, 그것을 감사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때 출퇴근 등록을 하였는지, 실수로 하지 않았다면 소명을 해야 하며, 그것의 타당성을 감사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니며, 이만한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리적 부담'에 대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절차를 정해두고, 감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만으로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선택제 근무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고 일률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근무형태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일을 집중적으로 일하고 하루를 더 쉬는 근무형태, 3일을 집중적으로 일하고 2일을 4시간만 일하는 근무형태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분석, 근무환경 등을 각 기관마다 분석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 및 행정업무 전담기관, 민원 전담기관, 출장 전담기관 등 각 기관마다 각 부서마다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각 기관 및 부서의 직무와 환경에 맞게 시간선택제 근무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정책적 제언

첫째,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를 단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은 KPI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고, 이 내용 중 공통사항(또는 부서공통)이 있

습니다. 공통사항 중 인사부문을 강조하고, 시간선택제 활용률 등의 지표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 적절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면,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감사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출근등록하기, 퇴근등록하기 등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단순 연동결재 등으로 같음하고,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는 것이 이러한 부담을 덜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 부서장 등이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모든 기관과 부서는 직무와 근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단순 활용률을 추적하기보다는 분기별 만족도 측정, 문제점 파악, 건의사항 수렴 등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무로 큰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합니다. 

3

나의 삶을 바꾼 시간선택제

김○○/한국수자원공사

저는 지금 늘 꿈꿔오던 공기업의 칸막이가 딸린 나만의 자리 한 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슴깊이 우러나오는 행복감과 다하지 못한 말들은 이 기회에 글로 소화해보려 합니다.

올해 38세 적지 않은 나이... 벌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보낸 시간은 어느덧 14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다지 효율적인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저는 청년기 24세 때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했었지만, 기울어져가는 가계를 돌보며 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시를 준비하기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체력이나 정신력 면에서 전부 부족한 듯 했습니다.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이 문제라기보다 젊은 시절의 제가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고, 연이어 떨어진 시험들도 자신감 상실에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24세 겨울, 저는 끝없이 경제적으로 힘들게만 치닫는 부모님의 생활에 더 이상은 도움을 주는 것이 한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시 교제 중이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넉넉한 출발은 아니었지만 맨손으로, 용기로 그렇게 나만의 긴 여정을 다시 시작해보았습니다.

꿈과는 다른 현실

젊은 시절의 기대나 목표는 참...삶을 순수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저는 14년의 삶을 홀로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은 무게를 등에 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내 가족이 있다고 피곤함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평하기를 너처럼 '미련한 중생'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배운 점도 많았던 것이, 힘들다고 현재의 문제를 회피하고, 지름길만 찾으면 더 돌아갈 일을 만든다는 공식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수행(?)의 결과겠지만 말입니다.

14년간 두 아이를 낳아 길렀고, 주부의 삶을 살며 공부하고, 각종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직도 해보고, 아줌마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참 다양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기도 했고, 병석에 눕기도 했으며, 친정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등의 적지 않은 고단함도 조미료처럼 가미되어 나의 인생 철도는 그 옛날의 '은하철도 999'처럼 광활한 노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켜오던 미련통이 인생의 습관처럼, 공부만큼은 계속 꼬적거리던 어느 더운 날이었습니다.

‘.....김○○씨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전지방 보훈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 시간선택제 운영직에 서류를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저는 자신에게 어떤 길이 펼쳐질지 잘 모르고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들이야 제가 뭘 하는지 이제는 포기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엄마는 바쁜 존재라고 느끼는 철든 영혼이었고 남편도 가끔이나마, 좀 더 효율적인 집안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곤 하는 정도였습니다만, 그조차 시들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조금씩 열리는 기회의 문

내면의 목표가 인생의 무게를 좌우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저 역시 어찌됐건 끝내지 못한 인생의 의무를 모른척하지 않기 위해 보훈청의 연락을 받은 즉시, 필요한 서류를 열심히 꾸며서 제출하고 또 제출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1차 서류를 들이밀 때도 사실 자신감이 있었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여태 자격증 시험 빼고는 시험이라고는 합격한 적이 없어서, 마음에 굳은살도 많이 생긴 터라 이번에도 거의 본업처럼 이력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거의 욕심 없이 지내는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 붙었으니 적성검사를 보라고 대전 본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뭔가,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직감은 이때 서서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흐른 것 같네요. 이상기후로 전국에 태백 산간지방을 빼고는 전부 폭염주의보가 내린 전설적인 삼복더위의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저는 채용되었다는 다른 회사들의 연락을 마다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상하게도 시간이 잘 가질 않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면접을 보러갔을 때만 해도 전 욕심을 버렸습니다. 젊고 유능해 보이는 친구들이 많았고, 면접 때도 동글동글 처세만 가지고 밀어붙였지, 네 분의 면접위원들께 내 욕심만큼 조리 있게 답을 못했다는 생각에 계속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마음이 힘들어서 차라리 모든 마음을 내려놓기로 생각했었습니다.

3차 통지가 오던 날, 합격 여부가 궁금해진 저는 무척 떨면서 컴퓨터를 마주했습니다. 무슨 시상식처럼 가슴이 뛰어서 그냥 앉아서 있어도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합격이 되었음에 저는 오후 4시경 아이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은 실감이 안나는지, 눈만 동그랗게 뜨고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급기야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동분서주 바쁘고 힘들게 살더니 이제야 빛을 보나 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준비를 끝내고 처음 연수를 받으러가는 장거리 운전이었지만, 맘은 이미 도

착지점이었고, 그리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이 내편인 것 같아서 그랬는지, 14년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막을 내린 듯한 기분에 온몸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넘치는 듯 했습니다.

3일간의 짧은 교육을 아쉽게 마치고,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 동기들과 다음을 기약하는 아쉬운 작별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 어찌나 떨리던지...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야 했던 상황이라 새벽에 태백을 가야했지만, 전혀, 진짜로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잠을 안자도 이렇게 힘이 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말이죠.

효율적인 채용형태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걸음

새벽에 초행길로 태백권관리단에 들어서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단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태백이 쌀쌀하다는 말은 계절만 포함된 것인지, 말없이 뒤에서 모든 걸 보고 챙기시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고마웠지요.

저는 지금 사택에 혼자 머물며 두 달째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젊고 혈기 왕성한 멘토님을 모시고 고객지원팀의 일원이 되어 한참 부족한 실력이지만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근무효율이 무척 좋은 편입니다. 아침 8시부터 회사차량이 출근을 도와줍니다. 집에서 몇 걸음만 가면 바로 회사차를 타고 다른 사택들을 거쳐서 모두를 신고 본부에 복귀하면 8시 20분 정도로, 아침식사를 하면 10분 정도의 명상을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유익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의 경우는 '시간선택제'라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목요일은 4시까지 근무하는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며, 근무시간에 철저하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은 일반 사원들과 같이 반영되며, 각자가 가지는 업무의 내용도 명확한 편이라,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의 직장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자세히 나열해보면, 첫 번째로 저와 같은 주부는 급여의 수준보다 아이들을 챙기는 데 효율적인 근무형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니, 자신이 어느 기관에 속해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며 경력을 쌓으면서도 충분히 엄마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이 요즘같이 청년취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혼여성에게는 정말 고마운 선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주부들도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취업지원계층의 일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진 상황도 복지국가로서 좀 더 국민의 삶을 이해해주는 공기업의 발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짚어보면, 주부지만 사회에서는 경계를 끌어가는 인적재산이기에 본인의 입장은 주장하지 못한 채 그만큼 본인이 속한 회사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조직에 소속된 이상 개인이 맡은 이상의 성과를 보여야 하며, 그러다 보니 출·퇴근시간을 보장할 수 없고, 심지어는 정확한 업무체계도 갖춰지지 않아서 본인의 일만 고집할 수 없는 무언의 압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업무의 범위를 보장해 주는 공기업의 근무체계와 저와 같은 경력단절여성에게 또 한번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 시간선택제의 근무형식의 배려는, 당면한 여성에게 일을 한답시고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의 효율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한 찬사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눈덮힌 들판을 걸을 때
 행여 그 걸음을 어지럽게 하지마라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뒤따르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
 - 서산대사

삶의 자세에서 선택의 신중함을 알리는 서산대사의 명언이 새삼 저에게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먼저 공기업에서 취업의 발판을 공익에 맞추어 열어주는 길잡이가 되어주었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걸음들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머지 않은 미래에 지금보다 많은 분야에서 생계를 꾸리는 다양한 구직자들이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게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몇 안되는 동기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게 된 작은 사건이 나비효과가 되어 더욱더 밝고 멋진 취업의 기회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넋두리 같은 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경력단절, 불안이 아닌 재도약을 위한 발돋움

유○○/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부

20대 후반!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돌아볼 때 절었던 나에게 아이가 생겼다. 축복받고 기쁜 일이었지만 걱정이 앞섰다.

근무하던 직장, 태어날 아이... 한참을 망설이다 회사에 임신소식을 알렸고 안타깝지만 출산휴가 3개월만 허락받은 채로 엄마가 되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친정에? 돌보미에게? 아니면 퇴사를?’ 수많은 고민 끝에 퇴사를 했다. 나는 어느덧 엄마가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첫걸음!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한발씩 스스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무모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용감하게 육아를 시작했지만 독박육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부모가 되는 건 이제까지 살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힘든 것이었다. 희생, 인내, 기다림, 눈물.....

딱 3년!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우자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며 육아에 최선을 다 했다. 원망도 들고 포기하고도 싶었다. 혼자 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육아를 시작했는데 왜 도와주는 이가 없을까 생각도 들었고 육아가 이렇게 힘든 건지 예상도 하지 못했다. 회사를 계속 다니고 아이를 맡기는 게 더 편한 방법은 아니었나 생각도 들었다. 순간순간 의지가 약해지고 방향을 잃기도 했으나 아이를 보고 힘을 내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갔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를 잘 키운다는 소리도 이따금 들었

다. 힘든 순간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싶어 스스로 격려도 했다. 내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며 무언가 모를 마음의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 시절 ‘나에게 잘 하고 있어’라는 성적표는 오직 육아뿐이었다. 아이는 곧 나였고 나는 곧 아이였다. 아이를 재우고 늦은 밤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무언가 잘 못되어 가고 있음이 느껴졌다. 나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잘하는 일이 있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던 시절도 있었다. 아이만 바라보던 시간이 밧줄에 발목이 묶인 코끼리처럼 나를 묶어버리고 만 것이다. 밧줄을 끊을 힘이 충분하지만 끊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코끼리처럼 나의 재능, 꿈, 능력을 잊은 채 육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낮에는 살림과 육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가족이 잠든 밤에는 혼자 과거를 회상하며 신세 한탄을 하며 지냈다. 다음날 해가 뜨면 또 바쁘게 살림과 육아를 하였고 밤에는 또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내 발목에 밧줄이 묶여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취업이든 창업이든 배움이든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30개월 즈음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그 시간을 활용해 자아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는 차츰 어린이집에 적응하였지만 나는 혼자 남은 시간에 적응하지 못했다. 아이보다 내가 더 불안했다.

다시 사회로 나가는 길도 장애물 투성이었다. 젊고 활기찬 20대와의 경쟁, 불투명한 비정규직, 단절된 경력,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있겠냐는 시선들이 커다란 벽이 되어 나를 막아 세웠다. 발목에 묶인 밧줄은 끊었지만 너무 높은 울타리 속에 갇혀 있었다.

이런 나를 바라보던 주변사람들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마침 주택금융공사 시간선택제 채용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어 지원하게 되었다. 이곳에서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서류접수, 필기시험, 면접의 길고 긴 채용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이겨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절박함이었다. 첫 직장에 입사지원할 당시보다 더욱 열심히 하였다. 최종합격의 소식을 접하였을 때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신입사원 연수기간에는 마치 타이머신을 타고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노력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또한 4시간의 근무시간을 통해 살림과 육아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었다. 나의 인생, 그리고 바쁜 회사생활과 잦은 해외출장을 가는 남편을 대신해 우리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과 따뜻한 울타리 역할까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모든 것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아이도 엄마가 회사에 가는 생활에 익숙해졌다. 퇴근길에 아이 친구들과 나눠먹을 과자를 구입해 놀이터에 같이 가곤 한다. 아이는 친구들에게 엄마가 회사 갔다 오면서 사온 과자라고 자랑하며 나눠주기도 한다. 열심히 근무를 하고 직장동료들과 점심을 함께 먹고, 소통을 하다 보면 소속감도 느끼게 되어 마음이 안정되어 아이에게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된다.

아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듯 나도 엄마로서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갔다. 엄마가 되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고마움을 절실히 느꼈다. 동시에 상처받았던 어린 나의 모습과도 마주치게 되었다. 숨겨뒀던 상처가 들추어지는 건 아픈 일이었지만 감추지 않고 마주할 수 있었기에 치유할 수 있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였다. 주택금융공사의 시간선택제로 다시 근무를 시작하면서 20대 시절의 직장생활은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실수도 하고 울기도 했던 어린 직장인은 어느덧 성장해서 넓고 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엄마가 되기 전 근무시절에는 몰랐던 소중함과 고마움이 느껴지고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3년이라는 사회와 단절되었던 기간은 아이에게는 엄마와 함께한 따뜻한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나에게는 불안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재도약하게 되자 지난 3년은 불안한 시간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킨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단절을 끊고 몇 년 만의 첫 출근은 생각만으로도 긴장되었다. 그러나 다행이도 시간선택제 근무자와 주 40시간 신입사원을 함께 채용하고 연수를 비롯하여 사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었다. 젊은 신입사원에게서는 폐기를 배우고 우리는 노하우를 알려주며 서로 의지가 되었다. 시간선택제 선배와의 만남 등을 통해 사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 후 때론 ‘유주임’이라는 호칭이 날 부르는지 모른 채 앉아 있기도 했다. 하지만 마치 아주머니에서 ‘아가씨’로 불린 듯한 묘한 기쁨도 있었다. 전일제 신입사원들과는 동기로서 선배들과는 사회적 연륜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여 위, 아래를 잘 연결해주는 소통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제도를 아직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우며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근무일지라도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 한다면 단지 단축근무에 머물러도 모른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또한 중요할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 짧은 시간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닌 함께하는 동료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자,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모두의 생활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 전환과 배려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다양한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무로 알게 된 행복함과 감사함을 많은 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각자 다양한 이유로 의지와 다르게 경력이 단절된 많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고 그 기간을 성실하게 보낸다면 추후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선택제 근무 등 좋은 근무조건이 조성되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가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겠다. 

5

내겐 너무나 소중한 두 마리 토끼!!

허○○/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지금으로부터 2년여 전... 4살, 3살, 그리고 7개월 연년생인 삼남매와 씨름하며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아침부터 씻기고 먹이고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채용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하반기 채용공고였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회사였으나 지금의 내 상황은 일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기에 무심코 읽어 내려가다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다.

심사직 5급 일반 그리고 그 밑에 심사직 시간선택제. 우와!!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었다. 이것이 정부가 그렇게 밀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줄이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배려한다는 그 정책이란 말인가. 뉴스에서만 보던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말인가. 근무시간도 환상적이었다. 9시부터 4시까지 6시간 근무!!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며 간호사 허○○라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았던 3년간의 시간. 드디어 그 시간의 종지부를 찍을 기회가 나에게도 왔구나!!

고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그 순간부터 나의 움직임은 빨라지기 시작했다. 손은 이미 입사지원서를 클릭하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입력하고 있었다. 필요한 서류가 많았다. 임시직장을 하고 서류 준비하러 막둥이를 안고 외출 감행!! 증명사진, 경력증명서, 면허증 복사 등등 필요한 것들을 일사천리로 준비하고 스캔하고 첨부하고 자기소개서까

지 꼼꼼히 작성 완료했다.

이 작업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지 3년 만에 내 이름을 찾은 것 같은 벅찬 뭔가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듯 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늦은 오후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허○○님 1차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합격이라니.. 30대 중반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참 애매한 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결과에 너무나 행복했다. 하지만 다시 2차 시험 걱정에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다.

입사지원서 작성은 수월하게 진행을 하였으나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짧은 시간에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급하게 기출문제집을 구입하고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집을 구입하고 남들처럼 하루 종일 공부할 시간의 여유는 없지만 낮 동안 짬짬이 그리고 애들이 잠든 후부터 새벽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시험 전날. 그 날도 두 아이는 등원시키고 막내를 데리고 짬짬이 문제집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인지.

그동안 내내 건강하던 우리 7개월 막내딸이 열이 나더니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더니 갑자기 열성경련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급하게 119 구급차를 부르고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하고 10분쯤이나 지나니 경련이 멈추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하는 10여분의 시간 동안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내일 시험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재취업을 하겠다고 너무 내 욕심만 부린 것은 아닌지..

각종 검사를 하고 결국 입원 결정이 내려지고 병실로 올라갔다.

눈물이 났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한데 섞여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뜯눈으로 밤을 보내며 35년 인생 중 가장 많은 시간 고민을 한 듯하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선 시험을 보러 가자는 것이었다. 그날은 내 욕심이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었던 것 같다. 35살이라는 나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이긴 하지만 이 나이가 지나 40대가 되면 뭔가를 시작할 용기조차 낼 수 없을 것 같

은 생각이 들었다. 남편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만 해볼게 하며 내 절실함을 전달하고 아픈 아이를 두고 시험장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에도 가슴 먹먹함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내 몫이었다. 무사히 시험은 끝이 났고 며칠 후 막둥이도 퇴원했다.

그리고 이틀 후 기다리던 결과 통보를 받았다. 나의 절실함을 누군가가 알았는지 이번에도 너무나 감사하게 합격이었다.

2차 시험까지 통과하고 나니 이제 최종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면접 기출 문제를 모아서 예상답안을 작성하고 거울을 보며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면접날 면접 순서도 1번이었다. 면접관의 질문에 표정관리 잘하며 성실히 답하고 처음 시행된 토론 면접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제 결과가 어떻든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다행스럽게도 세 번째 합격 문자를 받게 되었고 누구 엄마가 아닌 허○○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시택과 친정 양가의 도움을 받으며 교육기간을 마치고 천운으로 집과 가까운 수원지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심사직 업무가 시작이 되었다. 9시까지 출근이니 8시 30분까지 회사에 갔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6시간 근무시간을 충족하며 업무에 적응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항상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고민이 되었다. 우리 회사에 시간선택제가 도입이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6시가 퇴근이니 나만 4시에 퇴근하는 것이 여간 눈치가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 하원시간 때문에 나는 4시반에는 가야 했고 매번 죄짓는 심정으로 차장님께 말씀드리곤 했다.

하지만 얼마 후 차장님께서 먼저 퇴근시간에 눈치 보지 말고 제시간에 가라고 업무시간이 끝났는데 퇴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씀해주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수습 3개월을 일 배우며 회사에 적응하며 또 워킹맘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며 보냈다. 그리고 너무 유용하게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해서 10시

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작년부터는 사내 어린이집에 둘째, 셋째 아이를 보낼 수 있게 되어서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한다.

물론 지금도 일을 하지 않을 때처럼 하루하루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듯하다. 그 장소가 한 군데 더 추가되었을 뿐.

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회 초년생일 때 내 꿈이 허○○ 내 이름 석자를 건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면서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더없이 줄었다. 거의 없어졌다고 해야 맞을 듯하다. 그 누구보다 욕심도 많고 욕망도 많았던 나였기에 그 시간을 건디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하지만 나를 믿고 세상에 나온 세 아이들을 보듬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기에 그들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나의 몫이라 생각한다.

그 해답을 찾아준 것이 바로 시간선택제라는 근무제도라고 생각한다.

세 아이를 챙겨서 첫째는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두 아이는 함께 회사로 와서 1층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난 2층 사무실로 향하는 아침.


그리고 퇴근시간 1층 어린이집에 들어서 두 아이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1시간이지만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보내고 저녁을 준비한다. 회사에 있는 시간 이외에는 가능하면 아이들과 더 많은 것을 함께 하려고 노력중이다.

남들보다 2시간 적게 근무하니 2시간의 여유가 있다. 물론 그 2시간이 뭐 그리 크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남들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2시간 더 많다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싶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주고 싶기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워킹맘이다 보니 힘든 일도 참 많았다. 열성경련을 하는 두 아이는 입·퇴원을 반복했고 없는 연차를 쪼개 쓰며 병간호하고 가끔 야근을 하고 늦게 오는 엄마를 미워하며 투정부리는 아이들을 보며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그럼에도 곳곳하게 잘 버틴 내가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잘 자라주고 있는 6살, 5살, 4살 삼남매 또한 기특하고 사랑스럽다.

오롯이 나를 위해 30대 중반에 새롭게 찾은 희망. 특히 육아와 병행이 가능한 것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두 마리 토끼인 나의 꿈과 내 사랑스러운 삼남매들. 앞으로도 이 소중한 토끼들을 잘 보듬으며 키우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다. 

6

풍성한 삶의 울림소리

설○○/도로교통공단

오늘도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퇴근을 한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근무하면서 9시 출근 6시 퇴근은 내 몸에 스며있는 일상생활이었고 삶이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정해진 틀에 맞춰 생활하다 보니 개인의 삶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업무 특성상 친절 서비스와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는지...

특히 강남이라는 지역 특성상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의 거침없는 말투와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받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해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 모든 상황들을 가슴에 안고 열심히 근무한 결과 어느새 사십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지금도 역시나 고민 중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남은 인생 여유 있게 가끔 뒤도 돌아보며 사는 건 어떨까~~?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역시 돌아오는 건 '부메랑.'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다녀보자!!

내 나이와 비슷한 또래의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을 위해 여가생활을 즐기며 하루하루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난 여행도 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 실컷 수다도 떨고 싶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새장속의 새처럼 회사라는 틀 안에 갇혀 근무시간 안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난 틈틈이 날 위해 시간을 투자하려고 생각한다. 없는 시간을 분산해서 국가기술자격증시험도 도전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나이 들어 공부를 시

작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진다.

6시 퇴근 후 집안일, 학원, 학과공부 등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시간의 여유가 없다. 그래도 끈임 없는 도전정신으로 날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답을 찾던 중 얼마 전 우리 기관에서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온 걸 확인했다. 공단에서 운영중인 유연근무제 형태는 단시간근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등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였다. 때마침 나에게 맞는 유연근무제 형태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근무시간선택제를 신청했다. 주변 눈치도 보이고 망설였지만 부장님이 시간선택제 근무승인을 허락했다. 참으로 고마웠다. 오전 6시에 일어나 사무실 출근하면 7시30분, 퇴근은 16시 30분. 이보다 더 좋은 시간 구성이 어디 있겠는가?

업무시작 전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싶었다. 이른 시간 사무실에 혼자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았다.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며 청소년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나는 아침시간에 인터넷 강의도 듣고 학과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유연근무로 인해 현재 중간고사는 모두 만점을 받았다. 남은 기말고사도 만점을 목표로 해서 꼭 장학금을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아침시간은 나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다. 공부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고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잠깐 동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중이다. 행복하다.

문제는 퇴근시간이다. 일하다 퇴근하는 것 같아 주변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다. 시행 초기에는 퇴근 시 눈치도 보이고 근무하다 말고 집에 가는 것 같아 조금은 낯설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근무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망설여진다. 개인 연차를 쓰지 않는 한 6시 이전의 퇴근이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런 제도를 내가 유용하게 활용한다고 생각하니 기쁨이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의 유익함은 퇴근할 때 좋아하는 라디오채널을 맘껏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음악과 함께 달달하게 전해주는 사람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현재의 일상 생활에 있어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느낀다.

흘러간 옛 음악도 나에게는 크나큰 위로를 해준다. 퇴근시간이 일러서인지 도로 위의 차들은 많지 않다. 음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주변 경관이 눈에 서서히 들어온다.

이렇게 서울 도심이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한강변의 형형색색 이름 모를 나무와 꽃들, 지저귀는 새소리,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잔잔한 물결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다. 창문을 열고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하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훌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 든다.

도로 위에서의 감성적인 기분을 뒤로 하고 집에 도착하면 5시가 조금 넘는다. 이제껏 음악으로 내 마음을 달랠다면 다음은 운동으로 건강을 챙길 시간이다. 집에 들어오면 긴장이 풀려 나타해질 수 있으므로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헬스장으로 직행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핑계지만 시간 부족으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요즘은 1시간 정도 헬스장 런닝머신 위에서 신나게 달린다. 인생을 다이어트로 고민하던 나는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 또한 행복하다.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내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이 씻은 듯이 빠져나간 듯하다. 유산소 운동 후 근력운동도 틈틈이 하고 있다. 헬스장에는 사람도 많지 않아 여유 있게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다. 간간히 트레이너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샤워장도 붐비지 않아 유쾌하다. 신나게 운동 후 제일 행복한 저녁식사 시간이다. 저녁을 굶지 못하는 성격이라 운동을 한 후 보상심리가 발동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운동으로 적당량의 칼로리를 소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저녁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입안이 행복하고 위는 더욱 풍만해져서 배가 남산만 해져 잠시나마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다. 이유는 내일 또 운동을 할 수 있기에 칼로리 소모에 걱정이 없다. 신나게 음식을 먹은 후 8시가 되면 다음으로 중요한 나 혼자만의 시간 공부를 신나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빠져든다. 이전에는 저녁을 먹은 후 정리하고 나면 10시였다. 유연근무로 인해 나에게 2시간의 여유시간이 더 생긴 것이다. 12시까지 앞으로 4시간가량 공부를 더 할 수

있다.

청소년교육과에 들어와서 보니 공부해야 할 양이 방대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 간, 친구 간, 동료 간의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또는 알아가야 할 규칙들이 너무나 많다. 청소년심리·상담 공부를 일찍 공부했더라면 아이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었을 텐데 늦게 시작한 공부로 인해 아쉬운 생각이 든다.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는 청소년심리·상담 등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도 상당히 많다.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등 청소년교육과 공부를 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목록이다. 최근에는 직업상담사 공부까지 병행하고 있다. 학과 공부에 자격증 공부까지 마음과 머리에 여유가 없다.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마쳐야 하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행복하고 또한 감사하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고 하는데 공부를 시작한 내 시야의 폭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진 걸 알 수 있다. 소소한 일에 화를 내고 상대방을 힘들게 했는데 실무를 경험하고 이론으로 뒤늦게 공부하다 보니 마음 아프게 했던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안타깝고 아쉽다. 주변 지인들은 이야기한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가는지... 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이걸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는 나에게 청량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내 숨통을 조여오던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또한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준 상황들에 대해 감사하다.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업무에 최대한 집중하여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시작하는 단계인 공부 또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려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고 소중하게 보내려고 노력중이다. 그리고 난 주변인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할 수 있다면 유연근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의 시간을 자유롭게 알차게 보내도

록 말이다.

이제는 9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6시에 끝나는 근무형태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8시간이라는 근무시간 안에서 나에게 맞는 근무형태를 선택해 최대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셀리던트’ 즉 공부하는 직장인으로 변화하여 자기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II

직무능력중심 채용



1

NCS 채용, 원석을 캐내는 과정

박○○/한국수자원공사

올해 봄에 ‘최종합격’소식을 듣고 연수원에서 동기들과 벚꽃놀이하던 것이 한달 전 같은데, 벌써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분다. 취업준비생일 때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는데, 직장인으로서 입사 8개월은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게 마치 하루가 12시간으로 줄어든 것만 같은 착각이 든다. 취업준비생 때 많은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나중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지!’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마침 이 기회가 온 만큼 지난 준비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려한다.

그 날이 시작이었을까?

2010년 2월, 대전 토박이였던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대전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갔다. 부모님과 자동차에 이삿짐을 챙기고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던 그때 보이던 회사를 보며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저기 엄청 좋은 회사야. 나중에 네가 다니면 정말 좋겠다!”

아마 그때부터 마음 한 구석에 이 회사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2016년 신입 채용에 응시를 하여 ‘서류-필기-면접-인턴’을 거쳐 이 회사의 신입직원이 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국민의 물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이며, 현재 내가 8개월째 다니고 있는 회사이다.

NCS채용과정

2015년 공공기관 채용시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NCS채용방식 도입’이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채용방식은 구직자의 ‘스펙’보다는 ‘탈스펙’과 ‘직무적합도’를 바탕으로 직원을 선발하여 채용방식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갑작스럽게 도입된 만큼 공공기관 취업방향에 있어 큰 혼란을 주었지만, 2016년에는 각 공공기관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는 듯 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요약하자면, ‘가벼운 서류전형, 실무형 필기전형’을 통해 적극적으로 NCS를 도입하고 있다. 즉, 학력 등 개인정보는 최소화하되, 직무관련 경험 및 학교 교육·직무교육 이수 여부는 최대화하여 서류전형을 진행한다. 나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행정직무에서 필요한 지식에 알맞은 경제학·행정학·기타교양 과목을 교육이수 여부에 기재했고, 직장체험인턴·기자단활동·BUDDY 활동 등을 직무 관련 경험에 기술하여 직무에 적합한 인재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서류를 제출한 모든 사람에게 필기전형 응시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서류제출 후 ‘탈락’의 불안감 없이 곧 바로 필기전형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필기전형은 직무지식평가와 NCS작업기초능력평가로 이루어졌다. 행정직무의 경우, 경제·경영·행정·법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무지식평가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나는 경제학을 선택했다. 그 후, 공공기관 취업사이트에서 이전까지 공사의 필기방식이 객관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객관식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공무원 서적을 구매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했다. 사실 객관식시험이라 하면 난이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객관식 시험은 한 번의 잘못된 풀이과정이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평소에도 서술, 논술형보다 까다롭게 느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자원공사의 직무지식평가는 주어진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질 정도로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객관식 문제를 반복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필기전형의 또 다른 과목인 NCS작업기초능력평가는 직무지식평가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 부분이었다. 반영비율이 70%로 직무지식평가보다 높기도 했고, 문제집을 풀어도

실력이 향상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리·문제해결능력은 비율·비교 공식 등을 외우고 문제풀이와 오답체크를 하며 안정적인 점수대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의사소통영역은 문제풀이를 할 때마다 점수의 변동성이 컸다. 따라서 의사소통영역을 위해 문제풀이보다는 글을 읽는 연습을 많이 했다. 즉, 언론기사·책 등 실생활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스스로 사고해보려는 노력을 습관화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또한, NCS작업기초능력평가는 기존의 인적성과 달리 실제 기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문제와 접목시켜 출제되기 때문에 시증문제와 차별화된다. 따라서 필기시험을 보기 전에 공사 홈페이지와 언론기사 등을 통해 공사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갔던 것이 ‘긴 지문’의 NCS작업기초능력평가 문제를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벼운 서류전형, 실무형 필기전형’의 채용방식에 걸맞게 한국수자원공사는 필기전형에서 전체 채용인원의 단 2배수에게만 실무진 면접에 응시할 기회를 준다. 실무진 면접에서의 직무수행능력 PT면접은 각 선발분야 내 상황과 직무지식이 연계된 주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여 구두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었다. 나의 경우 경제학의 게임이론과 공사현안을 연결한 주제를 받았는데, 면접을 보면서 구직자의 직무적합도를 평가하려는 회사의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 더하여 인성면접 질문 또한 “~상황에서 ~할 것인가?”라는 상황질문으로 구직자의 행동 대처를 평가하고자 했다. 전반적인 면접전형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구직자를 파악하고자 하는 회사의 노력, 더 나아가 ‘NCS채용방식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다. 면접자의 입장에서도 해당 직렬로 입사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해당 직렬 응시자 중 직무상황을 알맞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구직자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전형 합격 후, 3개월 동안의 ‘인턴’기간을 거쳐 비로소 정규직원이 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인턴기간 동안, 배치될 현업에서의 OJT와 멘토링을 통해 새롭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직원들의 기본적인 직업소양 습득과 원활한 현업 적응을 돕는다. 나 또한 인턴기간 동안 기금과에 배치되어 기존 직원들의 도움으로 전반적인 기금실무를 파

약할 수 있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개월’의 인턴기간은 실제로 정규직원이 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조직 적응하는 데 유용했다.

이렇듯 ‘서류-필기-면접-인턴’을 거치며 나는 서서히 한국수자원공사의 일원으로 스며들었고, 현재에도 한 명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내고자 노력 중이다.

원석을 캐내어 다이아몬드로 만들다

2015년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NCS가 도입되면서 채용패러다임이 ‘스펙’에서 ‘직무’로 바뀌고 있다. 사실 직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인만큼 공공기관 채용에 혼란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의 채용전형을 경험하며, 내가 느꼈던 NCS 채용은 결국 ‘직무적합도가 높은 원석을 캐내어 회사를 빛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채용’이 아닐까 싶다. 즉, 직무적합도는 높지만, 낮은 스펙으로 ‘스펙과 열무’의 취업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는 원석을 필기, 면접 등의 선별과정을 통해 발견하여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을 최대화하고자 힘써주는 채용, 그것이 바로 NCS 채용이라고 생각한다.

‘SIN PRISA, SIN PAUSA’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도 말라라는 스페인어 문구이다. 현재 취업을 앞두고 ‘저스펙’으로 조급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다. 관련 경험과 교육을 바탕으로 관심직무에 대한 꾸준한 집중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분명 NCS 채용방식에서 경쟁력 있는 구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합격 수기를 쓰고있을 예비 공공기관 신입직원들을 응원한다. 

2

Realized the Unreality, 난 NCS로 인정받았다

안○○/신용보증기금

나의 스펙으로 불가능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 안○○ 주임입니다.”

구직자들의 워너비, 금융공기업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한 안○○입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공기업 취업을 위해 취업카페를 방문하고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며 잡플○○을 검색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은 좌절하고 어떤 분은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구직자들의 질문 대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스펙이 필요하나요? 경쟁률은 높겠죠?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겠죠?”

구직자들 사이에선 다음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금융공기업은 토익 900점 이하는 서류 탈락, 국외연수와 금융자격증은 기본, 학점 4.0 이하는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구직자 모두를 옥죄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서울 소재 혹은 해외대학 출신에 인정받는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수의 장학금을 받으며 제2외국어마저도 잘하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말 그대로 ‘형편’ 없습니다. 대학? 서울이랑 아주 거리가 먼 곳을 졸업했고, 학점은 결국 3.5를 못 넘었습니다. 토익이요? 900점 발끝도 못 갔습니다. 부끄럽지만 자격증은 2011년에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도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고 긴다는 구직자들 사이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다는 금융공기업에서 내가 될까? 안됩니다. 저의 스펙으로 '불가능'하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구직자들 입장에서선 준비해야 할 게 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고 난이도 높기로 소문난 금융공기업의 전공 시험도 뚫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그 무게감은 더했습니다.

하지만 NCS의 도입 목적은 소모적인 스펙 경쟁을 억제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습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구직자로서 준비해야 할 것이 늘었다는 것은 부담이었지만 도입 취지를 곱씹다 보니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다가온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NCS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 스펙 나열이 아니라, 능력 자체!

저는 '스펙'이 소모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지나면 만료되는 데다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자격증들, 업무에 사용하지도 못할 어학점수들로 가득하죠. 타인이 한다기에 '나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우르르 심리'가 취업난이라는 시대흐름을 관통했고 이것이 채용시장에 녹아들어 취업을 위한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구직자들은 그 스펙이란 기준을 책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이루어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능력은 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면 사다리에 오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 의미에서 NCS는 소모적인 '스펙쌓기'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허울뿐인 어학점수가 아니라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책에서나 배우는 어려운 지식이 아닌 업무과정에 기민하게 쓰일 수 있는 센스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든 겁니다. 직장에서 필요한 것은 당신이 가진 능력 자체입니다.

일은 해본 사람이 잘하고 공부는 집중해본 분야를 잘한다

남들과 구별되는 저의 능력은 ‘경력’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딜 가나 신입직원이지만 ‘경력직’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수능 이후, 취업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뮤직코디네이터라는 사업을 20살 때 시작했고 신용카드 영업부터 폐동철거업, 칼럼니스트까지 명함만 6개에... 일용직도 했다가 지게차 운전도 하는 등 다양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6년간 일하다 보니 돈을 떼이는 경우나 임금 체불 등 힘든 시간도 있었고 마감 기한을 맞추려고 새벽까지 일했던 경험, 큰 규모의 일을 맡아 많은 돈을 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업종을 거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6년차 ‘경력직’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익시험에서 30초간 들려주는 말은 못 알아들어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이름이나 도면구조는 알아들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마케팅이론의 학점은 D였지만 정말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돈을 벌 수 있는 영업현장에선 A+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금융업에 종사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21살 때 가진 것을 시작으로 관련 공부, 즉 재무나 회계, 투자 관련 지식은 학교 도서관을 들어섰을 때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전공시험을 치르기에 부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Realized the Unreality through NCS

NCS는 능력중심 채용제도이기 때문에 복사기식 입사지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최저 스펙만 갖추면 필기시험에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

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한민국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많은 업종의 회사와 그 경영자를 파악하고 산업환경 등 거시적인 것부터 기업별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분석할 수 있는 자질을 요구합니다.


저의 스펙은 말 그대로 전무했지만 꾸준히 갈고닦은 재무, 회계, 투자지식의 내공은 필기시험 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실무진 면접은 사업성 분석, 실제 경영인 확인이 포함되었으며 ‘내가 했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증 신청한다면 평가자로서 승인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한 결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기업 간 거래에 있어 투입된 노력과 건강, 시간에 따른 보상 수준을 현재보다 높여 절하된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좋은 평가를 받아 실무진 면접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임원진 면접에선 옛날 거래처 사장님과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임한 결과, 송곳과도 같은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평소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여러 산업군 경험을 통해 체득한 영업력과 직장생활, 동료와 상사 관계에서 필요한 센스 등의 소소한 부분을 적극 어필하여 초고스펙 지원자들의 경쟁을 이겨내고 당당히 최종합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땀흘리는 자는 언제나 옳다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 준비를 위해 달려가는 취업준비생분들, 여러분들의 땀은 언제나 옳고 또 옳습니다. 그리고 인력 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 시대는 당신에게 ‘무엇을 취득했냐’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그렇기에 복사기식 ‘숫

자와 증명서'가 아니라 '당신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NCS를 통해 취업 성공이라는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3

평생의 커리어 가이드, NCS

권○○/한국주택금융공사

NCS(국가직무능력표준)라는 벽과 극복

처음 NCS 기반 채용 전형을 접했을 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우선, 인문학도로서 4년간 학교에서 문학 수업만 들었던 나에게 취업이란 아주 큰 벽과 같았다. 게다가 NCS 기반 채용 전형은 2015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정보도 부족했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NCS 채용 전형은 기존의 채용 전형과는 달랐다. NCS 채용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면접까지 '직무능력'만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소위 말하는 학벌, 학과, 토익 같은 기존의 평가 기준을 벗어나서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만을 기준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 서어서문학이라는 전공이 금융권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처음 NCS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시쳇말로 '멘탈 붕괴'의 상태였다. 그러나 NCS 채용 전형은 기존 채용 절차와 크게 다른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나처럼 취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우선,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게시될 때, 지원분야에 대해 어떤 직무 능력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기술된다. 그것이 바로 직무기술서인데, 나는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에 맞추어서 나의 경험들과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필기전형과 면접 전형에서도 사전에 NCS의 직업기초능력 중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

지를 공고하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NCS 기반 채용

나는 2016년 상반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NCS 기반 채용 전형을 통해 입사하게 되었다. HF의 채용 전형은 서류-필기시험-1차 면접-2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든 전형이 NCS를 기초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서류전형

NCS 기반 채용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HF의 자기소개서에도 학교, 학과, 학점, 토익, 자격증 등의 기재란이 없었다. 스펙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원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한다.

대신에 NCS 자기소개서의 질문들은 지원자가 그동안 했던 업무 관련 경험들을 묻는다. 나아가 그 경험들이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물었다. 나는 직무기술서의 여러 직무 중 상품 개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서술하였으며, 나의 인턴 경험과 경영학 지식을 통해서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어필하였다.

필기전형

NCS 기반 채용 전형에서 필기시험은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HF의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나뉘었다.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는 10가지의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수리능력, 직업윤리를 평가하였다. 직무수행능력의 경우, 나는 경영학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경영학 이론에 관련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HF의 직무수행능력평가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중 HF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집중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HF에서는 유동화 증권발행이 주 업무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필기시험에서는 채권의 듀레이션 이론과 이자율

의 기간구조 이론에 대해서 물었다.

나 역시 필기시험이 NCS에 기반하여 출제된다는 이야기를 채용설명회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경영학 이론 중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다.

면접전형

NCS 기반 채용의 면접전형의 질문들은 직업기초능력에 근거하여 정형화되어 있다. HF의 면접은 필기전형과 마찬가지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나뉘었다.

면접은 한 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40분간 자기소개서에 기반하여 지원자의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한다. 업무상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지원자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질문하였다. 나머지 20분간은 지원자의 전공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전공 내용 역시 회사의 주요 업무와 연관이 되는 재무관리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할 때에도 NCS 면접 기출 문제를 보면서 업무와 관련된 질문들을 연습하였다.

현업과 NCS

운 좋게 최종면접까지 합격하였다. 취업을 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업의 세계는 취업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다. 현재 나는 경남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사의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유동화업무, 연금업무, 보증업무, 구상권관리업무이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동화업무는 보증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심사하고, 대출 실행된 건들에 대해 연체를 사후관리도 담당한다. 연금업무는 주택연금 심사 및 사후관리이다. 주택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이다. 보증업무는 개인보증과 사업자보증으로 나뉘는데,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개인보증업무만 담당한다. HF에서는 전세자금보증을 하는데 나는 보증채무 이행 업무를 맡았다. 구상권관리업무는 이행을 하고 난 뒤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

을 회수하는 일이며,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업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직업기초능력 중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가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이다.

우선, 의사소통능력은 지사의 모든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의 세부사항인 경청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은 현업에서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루에도 지사의 직원들은 수십 통의 전화를 받으며 내방하는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객들의 소리를 듣고 적절하게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능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NCS 문제집을 풀면서 고객 응대 메뉴얼을 익혔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문제해결능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금융업의 특성상 복잡하게 사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이행업무를 할 때, 은행에 이행을 해주고 난 후 채무자의 신용도 판단정보를 등록한다. 그러나 모든 이행 채무자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 신청자나 파산한 자는 신용도 판단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회생이 완제되었을 때에는 늦지 않게 신용도 판단정보를 해제해주어야 한다. 즉, 복잡한 경우의 수를 헤아려서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NCS 필기 시험 때, 문제해결능력이 어려워서 집중적으로 연습했는데,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직업윤리이다. 필기시험이나 면접 준비를 할 때, 직업윤리는 상식이므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 직업윤리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느꼈다. 최근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사 직원들의 직업윤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 지사의 경우, 대출이 실행되고 나서 고객들이 감사하다며 먹을 것을 들고 내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도 고객에게 음식이나 물건 등을 받을 수가 없다. 고객들의 선한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청렴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커리어 개발과 NCS

공기업에서 일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제대로 된 커리어 개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보통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부서를 옮기며 다른 일을 하게 된다. HF의 경우 앞으로 공사의 큰 업무 카테고리(유동화, 주택연금, 보증, 유동화 증권발행)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부서만 순환근무한다고 한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기존 직원의 커리어 개발에 NCS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NCS 자체에서도 ‘평생경력개발진로’ 통해서 자신의 진로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내해주고 있다. HF에서도 ‘평생경력개발진로’ 학습 모듈을 활용하여, 4가지 업무 카테고리 중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정하여 입사 후 대략 30년간의 진로를 가늠해본다. 이에 따라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필요한 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NCS를 활용해서 HF만의 독특한 평생경력개발진로를 만드는 것이 공사 직원들의 커리어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직장인으로 사는 것

이제 입사한 지 5개월 조금 넘었다. 아직은 지사 업무 중에 모르는 것도 많아서 이것저것 배우고 싶다. 그러나 나도 5년, 10년이 지나면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에 등장하는 P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신입사원 연수 때, 항상 초심을 잊지 말라는 사장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있다.

내가 비록 전공이 인문학이지만 금융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은 NCS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NCS에서 가이드하는 대로 채용전형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NCS의 도움을 받아 입사한 만큼 나의 커리어 개발에도 NCS를 활용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이 쌓이는 멋진 직장인이 되고 싶다. 

4

불안감에서 자신감으로! Never Consider Surrendering(절대 포기하지마)

고○○/한국주택금융공사

왜 나는 포기하고 싶었나

『아프니깐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만큼 우리 청년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상황 속에 나의 밥벌이를 책임져줄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다. 관심 있는 분야에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교 수업도 나름대로 열심히 들었지만 취업시장에 막상 나왔을 때 나는 그저 비루한, 그저 그런 취업준비생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불안했다. 늘 불안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밥을 먹여주지 않았고 유명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한 선배들을 찾아가다. 아직 NCS가 도입되기 전 시점에 취업했던 선배들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대답했다. “일단 토익, 토스는 확실한 점수를 받아 두고 그리고 나서는 금융 3종 세트,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사 능력 시험 정도는 해두는 게 마음이 편할 거다” 그랬다. 자격증, 다시 말해 스펙은 취업준비생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특히 많은 사람의 복지에 이바지하고 싶었던 나에게 공기업 취직은 마치 자격증 경시대회를 연상시킬 지경이었다.

그래서 먼저 토익학원을 다녔고 한국사를 공부했다. 하지만 그 공부는 두 달도 안되어 그만두고 말았다. 허무했기 때문이다. ‘내가 고작 이런 자격증을 위해 대학에 왔고 지금까지 공부했다는 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열심히 살지 않았었나’ 등 비관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래서 나는 그 혼한 금융자격증, 영어 회화 자격증 하나 없는 상태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다.

자격증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지만 초과 학기생이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처럼 느껴졌다. 용기를 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채 지원 버튼을 눌렀다. 나도 모르게 ‘자격증 란에 쓸 말이 없는데 어떡하지’, ‘운전면허증이라도 적는 게 좋을까’ 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원 페이지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일단 학교, 학과, 학점을 쓰는 란 자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격증은 6개의 전문자격증 외에는 기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피어났다. 도대체 내가 왜 불안해했었어야 했다. 선배들이 수없이 강조했던 자격증들은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대신 나는 직무와 연결되는 나의 경험을 서술해나갔다. 동아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봉사활동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경험 등등 하찮게 느껴졌던 나의 인생에서 진주와 같은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소한 경험이라도 해당 직무와 연결되고 또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인적사항에 고작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도만 기입하는 기이한 자기소개서는 지금까지 취업시장을 보는 내 시선을 변화시켰다. 고백하건대 나는 그때까지 대한민국 취업시장은 상당히 비효율적, 비합리적, 권위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지원자는 많고 뽑을 수 있는 인원은 적으니 온갖 쓸데없는 스펙을 가지고 사람들을 줄 세우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NCS하에서 나는 긴 줄의 어딘가가 아니라 나만의 독창성, 열정을 가진 한 명의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직무에 대한 의지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나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꿈을 어필할 수 있게 만든 NCS

취업준비생이 되기 전 나는 친구들과 정책제안 공모전에 도전했다. 주제는 ‘대한민국 노동력화 시대의 내수 활성화 방안’이었다. 꼬박 2주일을 같이 공부하고 합숙하면서 우리 팀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계

의 자산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잡혀 있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주택금융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NCS 채용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핵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필기, 면접 준비를 할 때 오직 회사와 관련된 자료에 집중하고 면접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다. NCS 도입 이전이라면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자격증이나 스펙 쌓기에 준비할 시간을 핵심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모든 전형에 있어 나의 꿈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민국을 한 명의 사람으로 본다면 가계부채와 급격한 노령화가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질병을 낮게 하는 방법은 새로운 주택금융상품의 개발과 보급이며 내가 그 역할을 맡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직 보잘 것 없는 학부생이지만 회사는 나의 꿈을 지지해 주었고 취업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통과했다. 면접 중 단 한번도 나의 자격 요건이나 학교와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았다. 면접관은 오직 ‘지원자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가?’를 궁금해 했고 지원자인 나는 기쁜 마음으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었다.

NCS가 더 많은 취업준비생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취업준비생들은 NCS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NCS가 또 하나의 스펙 경쟁을 양산할 것이라는 자조적 의견도 있다. 이는 아직 취업준비생에게 ‘직무 관련 경험’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턴’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턴이 귀해지고 있고 학교에서는 상경계 수업 편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의 다양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인턴, 학교 수업에 한정되어 있는 직무관련 경험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각 기업별로 직무를 설명하는 사이버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

생의 신청을 받아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회사의 업무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도 다양한 공사들이 중고등학생들의 경제 이해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공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물론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료를 위해서는 수업을 모두 듣고 시험을 치러 일정 점수 이상을 얻게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단군 이래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가졌다는 현재 취업준비생들이지만 아직도 그들은 어두운 현재를 살고 있다. NCS가 그들을 불안감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이끌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스펙이 아니라 능력을 통한 채용,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기업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취업시장을 달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개인적으로 NCS가 취업준비생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Never Consider Surrendering. 

5

‘Must’를 ‘Want’로 바꾸는 힘

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녕하세요. 2016년 상반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한 오○○입니다. NCS, 스펙 초월 등 공공기관 채용에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에 안전보건공단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선택 이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안전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로서, 구미 불산누출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의 중대재해를 보고 들으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있어 대학시절 내내 자주 접했던 안전보건공단은 너무나도 가고 싶은 회사였습니다.

채용 전형과정 소개 및 각 전형과정별 준비전략

안전보건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학벌, 학점, 어학성적 등 소위 말하는 스펙을 초월한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며 다들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는 토익이나 토익스피킹 같은 어학성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어학연수, 해외봉사활동과 같은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다양한 대외활동과 현장실습 경험, 전공 자격증을 토대로 공단에 필요한 인재임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안전보건세미나에 참석하였던 경험과 『월간 안전보건동향』과 같은 잡지를 매달 정독한 것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 서류전형

서류전형에서는 직무수행계획서와 지원분야 관련 경력사항 및 자격증, 교육사항만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자기소개서는 어렵기로 유명한데, 특히 2016년도 직무수행계획서의 항목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공직자의 직업윤리 등과 같이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실시한 ‘청년 안전보건 서포터즈’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 5개월간 다양한 업종의 현장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 관련 기술지도 및 현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였습니다. 현장실습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바를 직무수행계획서에 최대한 녹여내어 작성했습니다.

2) NCS 기반 직무능력평가

안전보건공단의 필기시험은 ‘NCS 유형 60문항+영어 20문항+한국사 20문항’이며 총 100문항을 110분간 푸는 방식입니다.

저는 안전보건공단 취업을 준비하면서 NCS관련 책을 여러 권 구입하여 NCS 유형에 대비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틀리는 유형, 자주 나오는 유형을 정리하였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와 유형을 찾아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NCS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과 실제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인적성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NCS의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은 대기업 인적성 문제를 풀어봤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와 관련해서는 가디언지 등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며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생각보다 지문도 길고 단어가 어려워 1문제당 약 1분 안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글로벌 이슈에 관한 내용이 많아 평소 영어신문을 통해 접했던 내용의 문제는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는 몇 년 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한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며 취득하였던 한국사 1급 자격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2016년 채용에는 가산점이 사라지긴 했지만, 한국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했던 것이 기반이 되어 실제 시험에서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3) 면접

안전보건공단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같이 면접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련 이슈와 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숙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면접을 진행하여 실제 면접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위생관리기사 필기시험 과목을 공부하여 전공이론에 대해서도 준비하였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면접은 집단면접으로, 같은 날 전공면접(직무수행능력 평가)와 인성면접(가치적합성 평가)을 모두 봅니다.

특이한 점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관은 지원자의 경력과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서만을 볼 수 있고, 지원자는 학교, 이름 등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되며, 만약 말을 했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면접 전에 안내받았습니다.

직무면접의 경우, 약 30분간 진행되었고 면접관이 두꺼운 책을 보며 개인 또는 공통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은 밀폐공간에서의 안전·보건관리, 현장에서 MSDS 관리방법,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등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보건관리업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대답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밀폐공간에서의 안전·보건관리의 경우, 실제 건축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을 사용했던 경험을 토대로 화재 및 질식 위험에 대비하여 산소농도와 이산화탄소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며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직접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인성면접 역시 30분간 진행되었으며 공통질문을 4~5개 정도 받았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은 공단에 관련된 것이었고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인성면접의 질문 모두 모의면접에서 미리 준비했던 질문들이었고, 안전보건공단에 입사할 준비가 된 인재임을 답변에 담아 답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질문이었던 입사 후 포부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느꼈던 보건관리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면접 모두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꼬리질문이나 압박은 전혀 없었으며 답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구직중인 후배들에게 전반적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

1) ‘Must’를 ‘Want’로 바꾸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보통 취업을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강한 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 시기에 꼭 취업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롤 모델을 찾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서 인사담당자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나의 경쟁상대는 타인이 아닌 '과거의 나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무한 경쟁의 연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경쟁은 정말로 타인과 하는 경쟁일까요? 그러한 생각은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과 자기혐오만 생산해 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과 경쟁한다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세분화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정복해 나가며 과거의 제 자신을 발전시켜나갔습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즐거움으로 돌아와 삶의 원동력이 되어 취업에도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내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있다면 타인의 기록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는 취업 그 자체를 성공이라는 열매로 바라보는 만족스런 시선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고,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면, 못 이룰 일은 없다

김○○/한국도로공사

NCS는 무엇일까?

1999년 ‘국가직업 능력표준의 조기 개발·보급’을 시작으로 2015년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가 확산되었습니다.¹⁾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스펙 쌓기’의 폐해로 석·박사 출신의 취업난, 비정규직 인턴생활의 반복 등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만연한 가운데 NCS가 확산됨에 따라 안개 낀 취업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총 847개 NCS 개발을 완료했습니다.²⁾ 저 역시 2016년 한국도로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NCS를 알았고, 직접 접했습니다. 저의 작은 취업 성공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불안하기만 했던 취업 고민

대학교 3학년 2학기를 지나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전보다 훨씬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내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동기들은 무엇을 준비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스펙 쌓기에 열중이었습니다. 토익(TOEIC) 시험, 오픽(OPIc) 시

1) 국가직무능력표준 공식 홈페이지(www.ncs.go.kr) NCS 소개-NCS 연혁

2) 국가직무능력표준 공식 홈페이지(www.ncs.go.kr) NCS 소개-NCS 연혁

험 등 영어 시험을 시작으로 각종 자격증을 따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정도 성적으로는 대기업에 합격하기에 불안하다면서 고득점을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들었던 대기업을 준비하는 이유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돌아온 답은 너무 허무했습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해보아야지.’

요즘 취업 준비의 두 가지 문제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위와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뚜렷한 목적 없이 스펙을 쌓는 것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기업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업과 큰 연관성이 없는 영어 점수나 자격증을 따면서 불안함을 해소하는 취업준비생이 많습니다. 실제로 동기 중에서 세 개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취업이 안 된 동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취업 준비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S그룹의 채용 필기시험 인원이 9만명을 넘었다는 기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³⁾ 주변에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라서 대기업에 입사원서를 냅니다. 즉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불안함을 느껴 남들과 같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

做事不患日力不足 但患心力不逮耳

— 『홍재전서』 175권, 정조

3) 조선비즈 인터넷 기사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9/2015040904681.html

원하는 것을 찾다

위에서 언급했던 불안하고 치열했던 취업시장 속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고 다른 동기들처럼 10개가 넘는 기업에 지원을 해서 내가 뽑히기만 기다리는 인형처럼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어서인지 토목기사 실기 전형에서는 두 번 떨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에 간신히 붙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 취업설명회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균형 잡힌 국토 발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껴서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헌신하라’는 제 이름의 뜻과도 맥을 같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채용 과정은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 한국도로공사의 채용 과정을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NCS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한 장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류전형입니다. NCS 기반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총 5~6개의 질문에 400~500자로 답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에 최소 지원자격인 700점 이상의 토익(TOEIC) 점수와 필수 자격증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덕분에 토플(TOEFL), 텡스(TEPS), 오픽(OPIc) 등 많은 영어 시험에 과도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상의 전공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몰입하는 채용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취업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필기시험입니다. 전공지식과 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EXAT)로 이루어진 필기시험은 토목 공기업 중에서 어렵기로 유명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접해봐야 했고 한 문제를 깊게 고민하는 습관도 필요했습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조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 위주로 공부했고, 나머지 개념은 스터디 구성원들이 낸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 시험장과 같이 OMR 카드에 답을 적는 등 최대한 시험장

과 같은 환경 속에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했습니다. 시험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NCS 기반의 채용의 정수(精髓)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외웠던 항목과 수치가 현재 업무를 하면서 그대로 쓰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NCS 수준 체계 중에서 ‘해당 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3수준’ 혹은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4수준’에 적용됩니다. 또한 직무능력평가(EXAT)는 전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기초적인 부분을 강조한 평가항목이라 생각합니다. 직무능력평가 중에서 출제되었던 지문이해 부분과 기초계산 부분은 실제로 본부나 본사에서 공문을 받아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정보를 특정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른 포트홀의 발생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것 또한 NCS의 수준체계 중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1수준’에 해당합니다.

최종 관문인 세 번째는 NCS 기반 시뮬레이션 PT 면접과 임원 면접입니다. 최종 면접은 면접자에게 두 가지를 묻기 위해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면접자의 인성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는 순간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집단 안에서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다른 구성원과 오해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그 인성 속에는 정부 3.0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업의 의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 간의 장벽을 초월해서 일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다른 동료를 대신해 도심지와 거리가 먼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자리입니다. 간단한 1분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전공 지식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논리를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현재 유지보수공사의 감독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항목입니다. 최종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3명이 한 조를 이룬 면접 스터디를 했습니다. 모의 면접을

하면서 서로 지적 사항을 공유했고,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좋지 않은 버릇을 고쳤던 점이 효과적이었습니다.

NCS의 미래

NCS 기반의 채용 과정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항상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그 일은 결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기본 원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NCS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확고히 정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7

행복이의 선물

박○○/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공단의 늦깎이 신입사원 박○○입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의 성남북부지사 장기요양보험팀에서 영양직으로 일하고 있는 3개월 차 35살 행복이 엄마입니다. 280여 명의 동기들 중 나이 순으로 줄 세우면 저는 3번째였습니다. 많은 나이였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선배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스스로 노력한 결과 나이 어린 동기들 못지않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토익시험도 쳐본 적 없는 제가 그렇게 들어오기 힘들다는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한 것은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단 취업은 꿈에도 생각지 않는 평범한 가정 주부였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올해 1월 말에 딸(행복이)을 낳았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입덧 한 번 없이 막달까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행복이는 태어나서도 너무나 순한 아이였습니다. 신생아는 밤 낮 구분없이 엄마를 괴롭힌다던데 저희 행복이는 집에 온 첫날에도 잠을 잘 자주었습니다. 그렇게 육아에만 전념을 하던 어느 날 우연이지만 운명처럼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16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모한 도전, 건강보험공단에 원서 내다

임신 전 물리치료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장기요양보험기관에서 5년이 넘도록 일해 왔지만 한 번도 건강보험공단 입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채용공고를 보고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천천히 채용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채용 조건에 영어 점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직 자격 조건으로 직무와 관련된 간호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행복이에게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직무능력중심 채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스펙 중심이 아닌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가장 중시한다는 채용 과정을 통해 저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 온 경험을 무기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서류 접수를 해 본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진 첨부도 없으며 미혼인지 기혼인지 개인 신상도 체크하지 않으며, 오직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정과 경력만을 첨부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일대기적 소개문이 아닌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 중심의 사건적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작성해보는 것이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영역에 맞게 솔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여 어설피지만 최대한 과거 일했을 때 느꼈던 경험을 살려 솔직히 써내려 갔습니다. 육아로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지만 순한 행복이 덕분에 아이가 잠든 시간 틈틈이 작성해서 무사히 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백수인 아줌마가 첫 도전에 서류가 통과되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은 채 접수 후 그렇게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 서류 통과. 그리고 NCS 필기시험

마지막 날, 마감 10분을 남기고 정신없이 서류를 접수하고 공부하기는커녕 육아에만 전념하던 중에 드디어 서류심사 발표 날이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험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하는데... '축하합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하셨습니다.' 이 문구가 나왔습니

다. 너무나 기뻐 옆에 누워있던 행복이를 안고 펄쩍 펄쩍 뛰었습니다. 저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준 행복이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약 일주일 뒤에 필기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0일도 안 된 행복이를 우선 누군가에게 맡겨야만 했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친정엄마에게 S.O.S를 보내서 행복이를 맡아주시러 올라오셨습니다. 착한 행복이는 이번에도 별 탈 없이 친정엄마와 잘 적응해주었습니다. 친정엄마와 행복이의 도움으로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필기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처음 접하는 시험이므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가직무능력(NCS)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제가 보아야 할 의사소통영역, 수리영역, 문제해결능력 각각의 기출 문제를 익히면서 우선 시험의 평가항목과 방향성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풀면서 연습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서관에 가서 누구보다도 집중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부족했지만 NCS 필기시험이 암기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직무능력 측정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고사장에 들어섰고 6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신없이 시험지를 풀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시간 안에 못 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실망도 했지만 짧은 준비 기간이었으므로 다음에는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선물, 기적 같은 필기 합격. 마지막 관문 면접

행복이의 100일을 이틀 남기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합격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그냥 경험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최종 합격에 다가설수록 더 간절해졌습니다. ‘엄마는 할 수 있어’ 말도 못하는 행복이가 정말로 도와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면접을 위하여 처음으로 카페에서 만난 어린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터디 첫날,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데 모두들 저보다 어리고 스펙도


다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답을 찾아 자신감 있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저희는 100여개가 넘는 직무관련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고 서로 역할을 바꿔 가면서 실제 면접처럼 연습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만나 답변뿐만 아니라 말투, 태도 등도 고쳐주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전 질문에 해당되는 과거 직무 경험을 생각해 내서 사례를 들면서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습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본부에서 치러지는 면접을 위하여 남편이 휴가를 내고 행복이와 함께 원주로 갔습니다. 진정제를 먹고 면접장에 들어 갈 정도로 떨렸지만 끝까지 미소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상과 같이 면접은 저의 이전 직무 경험에 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상급자를 설득해서 성공한 프로젝트 경험이나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안 등을 물어보셨고 전 준비한 대로 최대한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답변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저의 도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제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이제 하늘의 뜻만 기다리며 다시 행복이의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선물, 35살 아줌마 신입직원이 되다

합격자 발표날, 솔직히 기대도 했지만 어쩌면 저에게는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합격자 조회를 하였습니다. ‘박○○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종합격하셨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문구였습니다. 35살, 대한민국의 아줌마가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그 어렵다던 취업 바늘구멍을 당당히 통과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기혼이며 그것도 아직 돌도 안 된 아이의 엄마라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류에서 면접까지 저의 개인 신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점수, 다양한 자격증도 없는 ‘무스펙’의 제가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합격한 전 280여 명의 어린 동기들과 함께 한달간의 신입직원 연수 과정을 마치고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수습해제, 당당한 신입직원

지사에 발령 첫날, 저보다 나이 어린 선배님들도 많았지만 모두들 저를 축하해 주었으며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선배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열심히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수습이 해제되고 정식으로 당당한 신입직원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배울 점이 많지만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저는 지금 많이 행복합니다. 제가 합격한 걸 본 많은 친구들이 용기를 내어 공단 취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단이 원하는 직무 능력을 갖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공단 업무에 가장 적합할 것이며, 만족하고 공단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공단의 미래의 주역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고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의 공단 입사는 행복이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에 보답하기 위해 당당한 엄마, 멋진 공단인이 되겠습니다. 

8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심○○/한국도로공사

2015년 NCS라는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가 확산할 것이라는 기사들과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과 공부 이외의 공부도 하여야 했으며 남들과 다른 스펙을 위해 대학원에도 진학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펙을 쌓고 준비하던 중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스펙중심의 취업전형에서 직무능력중심의 취업전형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무능력중심의 취업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NCS 기반의 취업전형이 빠르게 정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준비와 다른 방향으로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남들과는 다른 뚜렷한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장점을 살려 유리함으로 만들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해 온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곳의 지원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도 꾸준히 참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한 선배들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한국도로공사의 입사전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스펙을 중시하기보다 실무에 기반을 둔 전공시험과 NCS 기반의 면접전형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들처럼 스펙에만 집중하여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NCS 기반의 채용형태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 실무중심의 직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토목기술과 관련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고 토목공학과 관련된 국가연구과제 행정정보조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사무실에서 국가연구과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오후부터는 실무기반의 전공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던 중 취직에 성공했다는 친구들의 소식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할 동안에 스펙을 쌓아 취직준비를 하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꾸준히 경험을 쌓고 직무관련 전공지식을 습득하였다고 생각했지만 2015년 한국도로공사 공개채용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준비한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은 국가연구과제 행정정보조 업무를 통해 충분히 쌓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실무기반의 전공지식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뒤로 약 10개월간 실무기반의 전공지식에 대해 꾸준히 학습한 결과, 2016년 한국도로공사 공개채용 필기전형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기전형에 합격한 후 그동안 준비해온 직무 관련 경험이 빛이 바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면접전형은 NCS 기반의 시뮬레이션 PT 면접입니다. 이는 직무와

관련된 상황을 수험자에게 제시하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수험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답을 준비하여 발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NCS를 반영하여 기관의 중요한 소식이나 미래 사회에서의 변화될 모습 등을 문제화하여 수험생이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의 경험과 관심 그리고 지식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면접 준비는 다양한 예상 질문들과 정보를 수집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발표를 해보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NCS 기반의 시뮬레이션 PT 면접이 그동안 직무관련 경험을 쌓기 위해 근무했던 행정보조 업무에서 많은 정보를 요약하고 발표하는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리 직무관련 업무를 경험해 보고 준비해왔던 저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 최종합격이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NCS 기반의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이 확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판단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면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또한, NCS 기반의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가 정착되어 실무능력과 직무관련 지식을 함께 준비했던 것이 주된 합격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면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다시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기존에 세웠던 계획만을 생각하며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남들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스펙을 쌓아오면서 취업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NCS라는 변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NCS 기반의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계획을 바꾸어 준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스펙이 더 높은

지, 어떤 사람의 스펙이 더 희귀한지가 중요한 채용기준이 아닌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능력과 지원자들의 경험이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채용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수혜자로서 지금도 불굴의 노력을 기울이는 많은 수험생에게 더는 스펙의 경쟁이 아닌 직무능력과 경험으로 경쟁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끊임없이 계획을 변경하고 생각하며 살아야겠다고 이 글을 쓰면서도 다짐합니다.

어느덧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입사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변화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고 변경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흐르는 대로 순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Il faut vivre comme on pense sinon tôt ou tard on finit par penser comme on a vécu

– Paul Bourget, *Le Démon de midi*, 1914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폴 부르제, 『정오의 악마』, 1914 

III

고졸채용



1

내 나이 열아홉, 대학교를 졸업하다

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벽 4시, 인천의 어느 대학교 도서관 열람실. 시험기간인지 꽤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무리 속에 앓던 얼굴의 여고생 한 명도 자리 잡고 있다. 편안한 차림의 대학생들과 달리 교복을 입고 문제집을 풀고 있는 여학생 하나가 유독 눈에 띈다. 새벽녘 꾸벅꾸벅 조는 대학생들을 보며 졸릴 법도 한데 커피우유로 잠을 쫓는 여고생의 모습이 웬지 안쓰럽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간다. 차가운 새벽공기를 벗 삼아 스트레칭을 하더니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다시 열람실로 향한다. 이따금 여학생의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 새벽 도서관은 적막하기만 하다. 그렇게 그 여학생은 첫차가 다닐 때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연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시침이 6시를 가리키면 여학생은 열람실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렇게 시간은 3년이 흘렀고, 열람실에서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그 여학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뽕뽕한 여고생에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란 그녀를 만날 곳은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이었다.

갑작스런 불행이 가져다준 최고의 선택

초등학교 5학년이던 유년시절, 드넓은 마당은 포래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자 부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한 순

간의 사고는 행복의 시간을 멈추게 하였다. “따르릉~따르릉” 점심시간 무렵, 행여 손녀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수업 중에는 연락을 피하는 할머니의 전화였다. 순간 느낌이 이상했다. “수진아, 지금 아범이 다쳐서 병원에 와 있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건축분야에 종사하던 아버지께서 낙상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사고 이후,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정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이혼과 함께 또래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드넓은 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나는 친척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고, 어려워진 가정환경을 피부로 몸소 느껴야만 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부의 혜택으로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교복, 참고서 등 사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아버지께 그 몫을 전부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까? 나의 일상은 또래들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학원을 향할 때 나는 아르바이트 현장을 전전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어느새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단지 부착, 음식점 서빙, 설거지 아르바이트와 함께 공부를 병행해야만 했다.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잠에 취한 나를 보며 할머니는 늘 가슴 아파하셨다. 몰래 흘린 당신의 눈물이 나의 뺨을 타고 흐를 때마다 나는 하루빨리 취업을 해서 가족을 챙겨야겠다는 다짐을 굳혀 나갔다.

이렇듯 예고하지 않았던 불행은 나의 직업관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고, 사고 후유증으로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간호사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인문계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해야만 했다. 어려운 현실 앞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사치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인 걸 알기에 할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결정은 갑작스런 불행이 만들어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나이 열아홉, 대학교를 졸업하다!

나의 고등학교 시절 3년은 집보다 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열 평이 채 안 되는 좁은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살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24시간 운영하는 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을 무작정 찾아갔다. 열람실은 외부인 출입금지였지만 경비아저씨께 사정을 말한 뒤 매일 밤마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교 후 집에 돌아와 할머니의 저녁상을 봐드리고 매일 도서관에 출석했다.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는 공부에 매진했다. 도서관을 나와 새벽 첫차에 오를 때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꿈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였다. 버스와 쉬는 시간을 이용해 쪽잠을 취하고 수업시간에는 공부에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또한 학교대표로 출전한 회계경진대회에 인천대표로 선발되어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영광스러운 기쁨도 얻을 수 있었다.

졸업반이던 해, 나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준 선생님들의 기대 속에서 나는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받아들게 되었다.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아버지께 조언을 구했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나라에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나라에 보탬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옳은 일이 아니겠니?’ 나는 아버지의 조언대로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였지만 고졸자로서 공기업 취업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계속되는 불합격 소식에 지쳐갈 때 즈음 ‘심평원’의 채용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기관의 비전을 보며 나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의 꿈을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심평원’에서 대신 실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차는 순간이었다. 그러한 확신에 나는 당장 취업스터디를 결성하였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착실히 준비하여 채용전형에 임했다. 최종발표 당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시간이 다가오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수업에 집중할 때 즈음, 교복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와 조심스레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드디어 내가 ‘심평원’ 정규직 전환형 인턴사원으로 최종합격한 것이다.

그러나 환호의 기쁨에 앞서 눈물이 먼저 앞을 가렸다. 기쁨과 더불어 지난 시절의 고난과 역경의 서러움이 혼재된 눈물이었다. 나에게 ‘심평원’ 합격은 유년시절의 고난과 역경을 보상해주는 커다란 선물과도 같았다. 그렇게 나는 3년간의 대학교 도서관 열람실 생활을 졸업하고 ‘심평원’ 입사에 성공하게 되었다.

고졸자의 인식과 한계를 뛰어넘다!

면접을 마치고 높아만 보이는 ‘심평원’ 건물을 나서며 ‘과연 내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라고 자문자답했던 때가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다시 걷게 된 이 길에서 나는 면접 때와는 다른 기분 좋은 설렘을 안고 배치받은 부서로 향했다. 부서 분들은 19살 인턴이었던 나를 자식처럼 또는 언니·오빠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셨다. 이러한 환대를 받으며 난생처음 배치받게 된 부서는 의료급여실 ‘의료급여 운영부’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적정 의료서비스를 보장케 하는 총괄부서이다 (의료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적게 하여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이며, 나는 실제로 아버지 사고 이후 이 혜택을 수혜 받아 왔었다).

이렇게 나는 어리숙한 신참 인턴사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어느 날 회의 자리에서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사항과 관련한 질문을 부장님이 나에게 던지셨다. 당시 막내 사원이었지만 실제로 내가 혜택을 받으면서 불편했던 점을 스스로없이 말할 수 있었고, 나의 의견이 회의안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 둘, 업무를 알아가며 성취감도 느꼈다. 그러던 중 ‘인턴업무 발표회’라는 행사가 개최되었고 나는 업무 개선사항 부문에 출전하였다. 입사 후 업무를 하며 느낀 불편사항, 개선점을 기록한 나만의 업무일지를 참고하여 발표 자료를 구성하였고, 나의 제안의견이 실제 업무에 반영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당시 심사위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재정절감효과를 언급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줬다는 심사평을 듣게 되었고 대졸 인턴들과의 통합 경쟁에서 우수상(2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수상의 기쁨에 더해 회사 임원분의 격려사는 나의 어깨를 더욱 들썩이게 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인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중략) … 특히, 고졸전형으로 입사한 박○○ 인턴사원의 발표를 보며 기존 사원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역량을 발견할 수 있어 더욱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상(賞)은 비단 나의 것만은 아닐 것이다. 임원분의 말씀처럼 고졸취업을 준비하는 전국의 고등학생과 고졸 출신 취업준비생들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상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 같았다. 나 또한 이 대회를 통해 고졸자로서 담아뒀던 내안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되었고, 심평원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크나큰 자양분이 되었다.


이러한 도전과 노력 덕분에 나는 6개월간의 인턴과정을 마치고 정식사원으로 최종합격하여 국민건강의 미래를 설계하는 ‘심평원’의 새내기가 될 수 있었다.

나의성장은 현재진행형

‘귀하의 능력은 뛰어나나 제한된 인원 선발로 인해 …’

대한민국 취업준비생이라면 한번쯤 보게 되는 문구이다. 나 또한 여러 번의 불합격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 일어섰다. 힘들 때마다 손 잡아 주시던 할머니, 든든한 지원군인 아버지, 날 믿어 주시던 선생님, 그리고 3년 내내 힘든 생활을 같이 버틴 친구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주변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자칫 외롭게 느낄 수 있는 취업준비 과정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출신 취업준비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취업준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고졸채용정책을 이해하고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나 또한 정부의 정책과 학교의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정부의 지원 아래 국비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취업연계 프로그

램이 현재도 운영 중에 있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해주는 다양한 도화지에 자신의 노력을 더해 본인의 꿈을 그려나가는 것은 어떨까? 지금 여기 그렇게 성공한 ‘박○○’이 있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고졸채용정책으로 나는 한 뼉 더 성장하였고,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고졸채용정책으로 밝아진 나의 미래는 오늘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심평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2

‘고졸’이란 아이콘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방법

노○○/국민건강보험공단

시작하기에 앞서

안녕하세요. 요즈음 취업준비생에겐 더더욱 쓸쓸한 날씨입니다.

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에서 근무 중인 노○○ 주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수많은 고졸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불안하시죠? 그리고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똑같이 불안했지만, 이렇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제 스스로 만들어간 저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마음껏 펼쳐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란 없다. ‘절실함’을 보여주자!

저는 취업을 성공하기까지 대략 1년이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사이에 금융권부터 시작하여 대기업, 공기업, 디자인회사 등등 다양한 기업에 도전했습니다. 작성한 자기소개서만 20개가 넘을 정도로 수없이 노력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열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취업에 대한 절실함’이란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해도 ‘다음 기회에는 붙겠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늘어가는 불합격 소식을 접하면서 ‘왜 나는 떨어질까?’, ‘왜 나는 취업을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에 취업은 물론 학업생활까지 무력하게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 기업에 꾸준히 지원을 했지

만, 끊임없이 전해오는 불합격 소식에 큰 좌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 좌절보다는 오히려 불합격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취업에 대한 안일한 태도’라고 판단되었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세 가지의 약속으로 취업의 문을 격파하겠다는 뜻으로 ‘Break 3’라고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아무 기업이나 지원하지 말자! 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에 도전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합격을 해도 원치 않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도전하는 것 대신에 제가 정말 원하는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약속은 내 자신을 보여주자! 입니다. 진실 50% 거짓 50%인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특징은 소통이었고, 매일 가족과 1시간씩 대화하는 생활습관은 물론, 주변 친구들의 고민상담사로 활동했던 모습 등 제가 실제로 생활했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 번째 약속은 떨어져도 슬퍼하지 말자! 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업에 지원하여 떨어지면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한다면 나를 원하는 수많은 기업들까지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합격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도 ‘Break 3’를 실천해보세요. 내 자신을 보여주면 나만의 능력을 알아보는 기업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많습니다. 분명 빛을 볼 날이 온다고 장담합니다!

취업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5가지 준비물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업에 꼭필요한 5가지의 준비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위에 언급한 ‘Break 3’는 필수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야 합니다.

- | | | | | |
|--------|---------|---------|---------|---------------|
| 1. 자격증 | 2. 학업성적 | 3. 출결상태 | 4. 활동경험 | 5. 구체적인 미래 계획 |
|--------|---------|---------|---------|---------------|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은 내가 이 기업에 입사를 위해 어떠한 전문성을 길러왔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만약에 정말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서 추구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채용공고를 파악해보면 컴퓨터 활용능력, 한국어 등의 자격증이 가산점이 있으니 자격증 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출결상태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납니다. 또한, 수많은 기업들이 성적 및 출결로 일부 지원자들을 걸러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적이 하위권인 분들은 금융, 대기업 및 공기업 등 공개 채용의 합격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하는 한 가지 방법은 스펙 초월 전형을 통해 스펙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활동경험은 내가 이 기업에 합격을 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아닌 다른 사회 생활에서 겪은 팀워크와 리더십이 분명 사내에서도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활동보다는 단체 활동을 경험하세요. 회사 생활은 단체 활동입니다. 협동심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미래 계획은 나의 비전입니다. 입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를 맡고 싶은지, 종합적으로 내가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상상하셔야 합니다. 막상 계획하기엔 다소 멀게 느껴지지만 1달, 1년, 5년 단위 등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를 차근차근 떠올리신다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나의 목표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 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일하면서 공부가 가능할까요?


사실 직장인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할 겁니다. 저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집에서 지쳐 쓰러졌던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어공부, 장기요양보험법 공부 등 저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계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공부법은 ‘출근시간을 활용하자’입니다. 출근시간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영화를 보실 건가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가실건가요? 출근에 하루 1시간씩만 소요된다고 생각해도 5일이면 이미 5시간을 버린 겁니다. 그 때 공부하세요.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상관없습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짧게만 생각했던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 나를 성장시킵니다. 회사가 가깝다면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세요. 도전해 보세요!

‘고졸’이란 단어가 나를 작아지게 하나요?

저도 처음에 고졸이란 이유만으로 무시당했었습니다. 합격 후에 아직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부서에서 저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회사에서는 ‘정말 일 잘하는 사원’이라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오히려 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을,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고졸에 대한 선입견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 생활에서는 고졸, 대졸 다 필요 없습니다. 본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길러 협동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에 대한 인식도 바뀝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입견은 고졸에 대한 선입견이지 여러분에 대한 선입견이 아닙니다. 또한, 고졸은 순서가 다른 것뿐이지 절대 뒤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면 ‘재직자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면서 학교까지 다니는 생활, 매력 있지 않나요? 우리의 무한한가능성을 꼭 보여주세요! 고졸도 그 회사의 정규사원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제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고졸 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는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졸 채용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취업준비생분들의 성공을 희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3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다

박○○/한국산업은행

후배들이 푹망푹망한 눈을 빛내며 내가 은행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런 때마다 난 내 볼품없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후배들은 한편의 블록 버스터를 기대하겠지만, 내 이야기는 진부한 다큐멘터리에 가까우니 말이다.

라이터로 사골국 끓이기

지금 은행에 몸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겠네!” 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나는 교과서보다 만화책을 더 좋아하던 평범한 중학생이었고,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밤을 새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심지어 학교 성적표를 요리조리 바꿔서 보여줬다가 크게 혼나는 철부지였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 속이 얼마나 타 내려갔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다.

이랬던 나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컴퓨터를 남들보다 조금 더 다룰 줄 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서 이 점을 보고 중2 때부터 특성화고로 진학하자고 제안하셨는데,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나는 그저 컴퓨터를 더 만질 수 있다는 점에 기꺼이 동의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다. 지원 자격을 보니, 성적이 상위 50% 이내여야 하는데 당시 내 성적은 턱없이 모자랐던 것. 입학신청까지 남은 1년 동안 처음으로 독서실에 다니며 공부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지만, 모르는 부분은 바보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옆 친구에게 물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부모님

께서도 도와주시겠다고며 거실에 있던 TV를 치웠다. TV 없이는 못살던 우리 가족에겐 정말 크나큰 결정이었고, 덕분에 나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난 3학년 말 간신히 40% 후반대 성적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우등생들에겐 다소 우스운 성적일 수도 있으나 내게는 동네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울 만한 업적이었다.

이 한 해 동안 두 가지 교훈을 깨달았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 늦은 것은 없다는 점이다. 내 성적을 알던 친구들은 이제 와서 공부해봤자 ‘라이터로 사골국을 끓이는 격’이라며 비웃었지만, 난 결국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아직 기회가 있다면 시기의 늦고 빠름에 구애받지 말고, 재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체감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어른들께서 항상 ‘삶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 역시 특성화고 진학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없었다면 공부를 시작조차 안했을 테니,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다.

연은 바람을 받아야 높이 뜬다

고등학교를 우여곡절 끝에 들어온 탓인지, 나는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이 깊었다. 성적은 준수한 수준을 유지했고, 중학교 때는 신경 쓰지도 않았던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부장을 맡아 분주히 뛰어다녔다. 선생님들도 이런 모습을 좋게 봐주셨고 나는 처음으로 모범생이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나는 진학반이었던 탓에 취업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학년 때 고졸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덕분에 저명한 회사들이 선두로 나서 고졸자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나 역시 그 중 하나였다.

애초에 나는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좋은 회사에 빨리 취직하는 것이 목표였다. 더욱이 고졸로 취업하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대학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니 방향을 정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작스레 취업을 결정한 탓에 나는 두 가지 관문에 부딪혔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반대였다.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대학교는 나와야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조차 거절하셨다. 이 때문에 부자 간 사이가 잠시 서먹해졌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와 함께 한 달간 끈질기게 설득하여 겨우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허락하신 이후, 아버지는 나보다도 더 많은 취업정보를 알아보며 회사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취업에 성공한 순간 제일 기뻐해준 고마운 분이 되셨다.

두 번째는, 갑작스런 진로 변경에 따른 전공과목의 문제였다. IT계열을 전공하던 나에게 취업에 유익한 금융, 경제과목 등은 거의 문외한 수준이었다. 당연히 이쪽을 전공한 친구들이 나보다 더 우수할 수밖에 없었고, 취업담당 선생님들도 이 친구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달리 방법이 없었던 나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또 독서실부터 새로 끊었다. 낮에는 학교에서 내신에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고, 밤에는 독서실에서 취업에 필요한 상경계열을 공부했다. 방학 중에도 학교에 매일 출석하며 보강수업을 들었다. 수업에 자주 얼굴을 비치니 취업담당 선생님들과도 친분이 생기기 시작했고, 진학담당 선생님들께서도 나에게 대해 좋게 이야기 해주셔서 취업반에 합류할 수 있었다. 평소 생활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학교에서부터 몸소 느낀 셈이다.

나는 이렇게 고비를 넘길 때마다 마음에 되새기는 명언이 하나 있다. ‘어느 정도 반대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연이 바람을 받아야 높이 뜨는 것처럼’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진심은 넘어지지 않는다

취업준비생 대다수가 여러 회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지만, 나는 오직 산업은행만을 목표로 삼았다.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한곳을 목표로 할 만큼 절실했고, 다른 회사를 쟁길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지원하는 산업은행 한곳만큼은 진심을 다해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진심을 다한다면, 산업은행 역시 그 진심에 응답하리

라는 게 내 조그만 믿음이었다.

입사 과정은 기대 이상으로 어려웠다. 첫 번째는 서류전형이었는데, 능숙하게 자기소개서를 짚어내는 친구들과 달리 나는 한 개를 쓰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 초안을 완성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릴 정도였으니 말이다. 2주에 걸쳐 여덟 번쯤 수정을 거치고 나니 내가 만족할 만한 자기소개서가 나왔고, 그걸로 은행 역시 만족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 관문인 금융시험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난 공부에 요령이 없어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을 방법으로 삼았다. 잠을 줄이고 식사시간을 줄여가며 공부를 했다. 등하곶길 지하철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시험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다. 하지만 금융시험은 내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시험문제는 대부분 내 지식의 범위를 초과했지만, 다행히 공부를 하면서 생긴 내 감(感)은 쉽게 틀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늘 그렇듯, 노력은 날 배신하지 않았다.


금융시험을 통과하니 면접이라는 제일 큰 산이 남아 있었다. 딱 준비한 만큼만 보여주자는 각오로 임했다. 난 면접을 잘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게 보지도 않았다. 각종 미사여구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했고, 내 단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겸손하게 내 부족함을 인정했다. 다만 면접 중에 조금 욕심내서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은행에 대한 내 진심(眞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넘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랑거리

나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내가 합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 스스로를 버틸 자신이 없었다. 다행히도 믿음은 날 배신하지 않았고, 나는 13행번으로 은행에 합격할 수 있었다. 나는 기쁨에 겨워 웃었고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우셨다. 합격 당시 은행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주었는데, 어머니께선 그 꽃들을 어머니 가게 입구에 걸어 놓고 자랑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 마냥 좋았다.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던 내가 이렇게 좋은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 지금까지 열

심히 준비한 후배들은 더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들의 눈 속에 타오르는 불꽃이나 어깨에 올려진 다짐의 무게를 보면, 내 과거의 그것은 비교도 안될 정도이니 말이다. 선취업 후진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므로 지금의 후배들이 함께한다면 분명 훌륭한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자신의 단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후배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수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외모, 성격, 내신성적 등을 이유로 취업에 자신감이 없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들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보완하며 살아갈 뿐이다. 면접에서, 나는 IT전공이므로 다가오는 핀테크(Financial + Technology) 시대에 적합하다는 것을 어필했다. IT를 전공했다는 것은 사실 금융에 대한 조예가 떨어진다는 단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는 시점을 달리해서 장점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관점을 다르게 보면 여러분들의 단점도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이다. 

4

열아홉, 앞으로의 경험이 더 많을 나이

김○○/신용보증기금

“오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꼭! 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게 할 것입니다!”

당찬 목소리로 호기롭게 답변을 외치자 면접관과 면접을 함께 보는 친구들에게서 웃음이 튀어나왔다. 신용보증기금 최종 면접날, 열아홉의 나는 자신감 그 자체였다. 평범한 중학생에서 특성화 고등학생으로, 취업이라는 막연함에 불안해했던 고졸취업 준비생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신용보증기금의 62기 사원으로 나는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해나갔다. 현재 나이 스무살, 어느덧 입사 1년차가 된 나에게 가장 먼저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막연한 꿈이 목표가 되는 순간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어머니께서는 중학교 때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권유하셨고,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입학은 내가 가야 할 당연한 길이 되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이 문제였을까? 본인의 진로를 일찍이 찾아 대학진학 또는 취업을 미리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나는 평범한 1학년 생활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책은행에 입사한 선배의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금융권에 막연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취업 준비생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인 금융 공기업의 꿈을 생각해보지만 1학년부터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달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는 단순 희망사항으로만 남기려고 했었다. 2학기가 되어 담임 선생님과 진로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다. ‘공기업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조롱을 받진 않을까 지레짐작하며 여쭙보았는데 선생님께서는 ‘공기업에 가고 싶구나!’라며 다양한 공기업을 소개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입사한 선배들의 포트폴리오와 스펙을 나열해주시며 지금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말을 덧붙여 주셨다. 막연하게 갖고 있던 꿈이 현실에서의 목표가 되는 순간이었다.

A goal without a plan is just a wish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나는 취업이라는 목표를 한낱 꿈으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갔다. 낮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공기업에 입사한 선배들과 일찍이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신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시험기간이 되면 개방되는 학교 면학실을 이용하기 위해 종례가 끝나자마자 3층으로 뛰어갔고, 내신공부와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며 교과목과 관련된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실력을 인증받기 위해 각종 교내대회에 참가하였고 17개의 상장을 거머쥘 수 있었다. 취업준비라는 출발점에 남들보다 늦게 선만큼 벌어진 차이를 따라잡기 위해 누구보다 바쁜 2014년을 보냈다.

그 해, 나는 2학년 대표로서 인천시교육감 표창장을 수상하며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좌절과 실패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다

상반기 고졸채용이 시작되자마자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준비했는데 설마 하나는 붙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자신감을 비난하기라도 하듯 무작위로 지원한 원서는 보기 좋게 탈락의 쓴맛을 보여주었다. 면접질문을 200개씩 출력해가며 매일 밤 답변을 작성하고, 선생님들께 모의면접을 부탁드려가며 확실하게 준비했던 한 금융기관 최종면접마저도 불합격하면서 자신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그간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달려온 나는 다소간의 슬럼프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어 달리기 시작했지만, 목표에서 점차 멀어져가는 내 모습을 보며 다급함과 불안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다른 날들보다 심하게 탈락의 아픔을 겪은 날, 나는 취업준비를 일시정지하고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확신 없는 그저 찢러보기 식의 지원은 나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후, 나는 전보다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취업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신용보증기금에서 채용형 고졸 인턴 공고를 보게 되었다. 특이했던 건, 1차 면접 전 영업점 현장실습이 채용전형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였다. 부모님께서서는 실습이 채용완료 후가 아니라 채용과정 중의 하나인 점을 말씀하시며 혹여나 불합격한다면 한 달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하라고 하셨다. 마침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는 나에게 한 달간 실습을 하면서 우수자를 선발하는 신보의 채용 과정은 한 달간의 공백으로 인한 위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느껴졌다. 더욱이 단순하게 몇 분 동안의 면접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한 달간 모습을 선배직원들에게 어필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뿐더러,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사회생활에 필요한 좋은 경험이자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나는 신용보증기금에 지원했다.

I'll Be Back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생활을 제외하고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조건변경, 신용조사서 작성 등 신보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수월하게 처리할 때도 있었지만, 업무처리에 필수인 방문 고객의 신분증을 복사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건물을 나가는 고객에게 뛰어가야 했던 경우도 있었고, 전산으로 자동 집계되는 보증료인데도 너무 비싸다며 나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내년에도 다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던 고객분들도 많았다. 많은 사람을 대응해보

고 다양한 상황을 겪어보면서 업무적인 능력은 물론 나 자신 또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된 좋은 기회였다.

사실 처음 배우는 용어들은 낯설고 업무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막막하기도 했었다. 그런 어려움을 알게 된 같은 팀 주임님이 신입사원 때 공부했던 연수교재와 전산매뉴얼을 공유해주셨고, 멘토 차장님과 다른 지점 직원분들은 아직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이 남은 나에게 작년에 입사한 고졸 선배와의 만남을 추천해주시며 끊임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셨다. 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틈나는 시간마다 연수교재를 읽었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복사해 선배들에게 질문하며 공부해나갔다. 이론을 이해하고 나니 업무진행 과정을 전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업무처리 속도가 전보다 훨씬 빨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장실습 마지막 날,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되새기며 현장실습을 마쳤다.

그 후 한 달이 채 지났을 무렵,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신용보증기금 합격자 발표) 김○○ 학생, 신용보증기금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월 1일, 나는 현장실습했던 지점에 감사인사를 드리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점 직원분들을 만나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되뇌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했다.


“I’m Back!”

열아홉, 앞으로가 무궁무진한 나이

현재 나는 채용형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인천영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출근한 지 1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회사 입구로 들어갈 때마다 ‘내가 여기에 다니고 있다니’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내가 이곳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처음 가지게 된 목표는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켰다. 비록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불안했고 좌절과 실패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던 계기와 기회를 찾았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은 잠시 취업준비를 멈추고 마음속으로 되새긴 말이자, 현재 고졸 취업 준비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열아홉의 나이를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경험한 일보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이 더 많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보다 앞으로 배우게 될 일이 더 많은 나이가 아닌가? 아직은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겪은, 앞으로 겪을 모든 경험들은 인생의 조력자가 될 것이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요즈음 온라인상에서 탄탄대로만 걸으라는 의미의 “꽃길만 걷자”라는 표현이 있다. 취업이란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오늘도 홀로 험난하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고졸 취업준비생들에게 그 벽 뒤에는 ‘꽃길’만 있기를 바란다. 

5

과감하게 선택하자, 모든 것을 쏟아 붓자

전○○/신용보증기금

어느덧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하곤 한다. ‘만약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면 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별 볼일 없는 듯 특별했던 지난 나의 생활을 소개해보려 한다.

원래부터 고졸 취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학교 3학년 말,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홍보를 듣게 되었고 홀린 듯 유인물을 받아 들었던 것이 시작이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욱 키웠고, 부모님께 최대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었던 나는 다소 충동적으로 하루 만에 고졸 취업을 하겠다는 결심을 세웠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식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주변 친구들 중 부모님께 특성화고 원서 접수를 퇴짜 맞았다는 말이 부지기수로 들려오면서 부모님의 반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면 칭찬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선뜻 나의 결심을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한 우물만 파자는 다짐은 고졸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크게 작용한 이유 중 하나였다. 우리 학교는 취업 희망자와 진학 희망자의 비율이 각 50%로, 고등학교 생활 3년간 모두들 취업과 진학의 갈림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나는 고등학교 원서를 넣을 때부터 취업이라는 우물만을 봤던 몇 안 되는 학생 중 한 명이었다.

자랑은 아니지만 취업만을 준비하다 보니 내신 점수에 비해 모의고사 점수는 바닥을

치기 일쑤였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혹시 취업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진학과 취업 둘 다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걱정 붙들어 매라며 귀를 닫았다.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소 위험할 수 있었던 올인 작전을 펼치기 위해선 각고의 노력을 해야 했다. 내신 관리의 당연하고, 방과 후 수업과 전문교과 수업으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영어강독 대회와 논술대회 등 교내대회에서 수차례 수상 경력을 쌓아 서서히 생활기록부에 한 줄 두 줄 기록해 나갔다.

하지만 그런 기록에 남는 스펙보다 더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활동이었다. 2년간 동아리 부장으로서 축제 준비를 총괄하여 예산안을 계획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가며 사회생활의 초석을 닦았다. 또한 중학교 때 나를 특성화고의 길로 이끌었던 학교 홍보도우미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3년간 발로 뛰며 열심히 활동하며 선생님들께 인정을 받았다. 어느 학교 어느 행사를 가던 나를 먼저 찾는 선생님들을 보고 처음으로 ‘인정받는다’는 설렘을 느끼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생겼다. 이를 발판으로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해가며 영재학급 수업을 받고 취업이 다가올 때는 매일 아침 학급에서 5분 시사 스피치를 하는 등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글로 쓰는 ‘스펙’보다는 ‘내 모습 자체’를 만들어갔다.

3학년으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올인 작전을 펼친 것이 후회가 되었던 첫 번째 순간이 찾아왔다. 첫 번째로 지원한 공기업에 보기 좋게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기 때문이다. 다른 친구들이 “취업 실패하면 수능이나 보지 뭐~”라고 말할 때마다 진학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다급해진 마음으로 취업 공고가 들어오는 족족 닦치는 대로 원서를 넣기 시작했다. 나의 적성과 가치관은 고려하지 않고 취업만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기계적으로 쓰다 보니 취업을 목표로 삼은 것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껴졌다.

그렇게 지쳐갈 즈음 선생님께서 신용보증기금 공고를 보여주셨다. 솔하게 지원서를 낼 때마다 여러 도움을 주셨지만,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보라고 강조하셨다. 회사에 대해

차차 알아보니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에 보증·보험·관리 내지는 본점 업무까지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흥미로웠다. 하지만 서류전형부터 최종면접까지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 사이 1달간의 영업점 실습까지 있어 다른 곳에는 지원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었다. 실습 중간에, 지원했던 다른 공단의 소셜리크루팅과정 합격이 되어 최종 면접만을 남겨 두고 있었다. 경쟁률과 남은 채용 단계를 고려했을 때 타 공단의 최종면접에 참가하라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지만 신용보증기금 실습에 계속 참여했다. 바쁜 와중에도 사회생활에 무지한 고등학생을 열심히 가르쳐주시는 옆 자리 선배님, 화가 난 고객들도 지점을 나설 땐 천사로 만드는 직원분들..... 실습 당시엔 이런 모든 상황이 감명 깊었다. 꿈꿔왔던 업무는 물론이고, 인간적이고 능력 있는 동료들 사이에서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을 느껴 신보에 입사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였다.

“신용보증기금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친구와 부둥켜안고 엉엉 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열 번의 좌절 끝에 얻은 성공이라는 것은 반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들 전체가 다 알고 있었다. 교무실에 금의환향하듯 들어가 과분한 축하를 받는 와중, 담임 선생님은 걱정 어린 말씀을 하셨다. 취업을 성공한 것은 축하하지만, 부푼 기대를 안고 들어간 회사의 현실은 나의 환상과 많이 다를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대망의 첫 출근, 지점 직원분들은 너무나 친절하고 편안하게 맞이해주셨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지점 근무가 끝나고 신입직원 연수를 들어갈 때 까지 변함없었다. 이따금씩 거친 고객님이 방문하실 때면 딱 봐도 어리고 사회경험이 없어 보이는 나는 타깃이 되고 말았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아는 것이 없어 겁먹은 채 응대할 적도 많았다. 선배 직원 분들은 업무뿐 아니라 고객 응대 팀으로 본인이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해주셨다.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따끔하게 일과 사회생활을 배우면서 진정한 직장인으로 성장해나가는 내 모습이 보였다. 한 달에 한 번씩 등교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신용보증기금 다니면서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을 것 같아요.”

고졸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입사한 지 1년이 지나서도 위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학보다 취업의 길을 택하면서 고졸 직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우선 걱정이 될 텐데, 차별은 고사하고 더욱 이해해주시고 배려해주시며 대학 진학까지 장려해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신답니다.

취업을 빨리 해서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 또래 친구들이 하는 경험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청춘을 즐기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취업을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주위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회사생활에 만족할 수 없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적성을 살려서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는 신용보증기금의 행보에 발맞출 수 있다는 것, 그 속에서 하는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괴리가 없다는 것,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좋은 사람들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 20살 꽃다운 나이에 남들이 하기 어려운 좋은 경험을 하고도 앞길이 창창하다는 것! 피곤하고 지칠 때도 이런 생각을 하면 힘이 샘솟고는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여유를 가지고 미련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쓰디쓴 실패를 맛보면 지난 생활이 후회스럽고 한없이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후회스러운 생활을 한 시간보다 그것을 후회하는 시간이 더 아깝다는 말도 있습니다. 후회보다는 여러분이 지내온 모든 시간들은 좋은 나쁜든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을 거예요. 힘들 때는 주변의 선생님이나 선배, 친구, 가족 등 편한 사람에게 훌훌 털어놓고 학교생활과 취업에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선택을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세요.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 번 서류에서 탈락하면서 낙심했었지만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은, 사람마다 목표를 이루는 시기가 다른 것이지 최선을 다 하면 늦게

라도 그 꿈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취업의 팁이나 필수로 쌓아야 하는 스펙보다는, 어느 때보다 불안할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들을 해주고 싶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6

펼떡이는 물고기 처럼

손○○/근로복지공단

어른아이

25살, 어리다면 어리고 많다면 많은 나이. 허나 남들처럼 그 흔한 대학 졸업장 하나 없이 겁도 없이 어렵다는 그 취업시장에 뛰어든 어른아이, 그게 바로 나였다.

목표도 꿈도 하고 싶은 것도 없던 고3 수험생 시절 성적에 끼워 맞춰 입학한 대학과 전공이 적성에 맞을 리 만무했다. 대학에 들어갔다는 기쁨과 해방감도 잠시 전공에 흥미와 적성을 하지 못한 나는 중퇴를 결심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친구들이 엠티며 축제며 학교생활을 할 때도 스펙을 위해 자격증을 따고 어학연수를 갈 때도 나는 공무원이 될 거란 생각으로 중퇴를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이은 불합격의 통지와 20대 중반에 이른 나이, 대학 졸업장도 없는 스펙 앞에서 내 모습은 초라하기만 했다. 학생으로 보호받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어른아이가 되어 있었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으리라

그 시기에 나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다.

‘마지막으로 1년만 더 공부 해볼까?’ ‘다시 학교로 돌아가 졸업장만이라도 딸까?’

허나 나는 공부를 더 할 자신도 없었고 맞지 않는 전공을 졸업장이란 이유로 다니고 싶지도 않았다. 취업을 생각했지만 고졸인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내

발목을 잡았다.

그러던 중 고졸채용 할당제라는 신문 기사를 접했고 공공기관에서 고졸을 채용한다는 문구가 내 눈에 띄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했던 나의 약점이 기회로 다가온 것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기회는 온다고 한다. 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나는 공공기관의 고졸 취업을 목표로 삼았고 한국사능력시험, 컴퓨터 활용능력시험,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취업준비생들의 카페를 통해 정보도 공유하고 인적성 시험을 위해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다 풀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서비스강사 과정, 스피치 학원을 다니며 면접에도 철저히 준비했다. 8개월의 취업 준비기간 동안 실패의 고배도 여러 번 마셨다. 서류전형 탈락부터 최종면접에서의 불합격통보.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고졸채용에 도전했고 마침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버팀목이 되어 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합격하게 되었다.

내 생애의 첫 직장으로 어른아이인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펼떡이는 물고기처럼

호기롭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으나 직장, 사회, 어른, 규칙 모든 단어가 생소한 나에게 당시 나의 멘토 과장님께서 “갓 사회에 나온 신입직원으로 가져야할 마음가짐 중 제일은 적극, 역동, 능동 등의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집단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직원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한 권의 책을 주셨다.

책 『펼떡이는 물고기처럼』은 나에게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갓 사회에 나온 나에게 일터를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게 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회사에서, 조직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지 방향과 가치관을 잡아주었다. 내가 일터에서 임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업무방식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만들어 가는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즐겁고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근로자의 희망버팀목이 되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찾아오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과 일대일로 수행하는 대민 밀착형 업무인 만큼 나의 특기인 웃는 얼굴과 명랑한 성격으로 고객을 맞이하며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희망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했다.

가입지원부에 배치된 나의 주된 업무는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징수업무였다. 보험료 입금관리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며 원천징수 확인 등의 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수반되는 금융보험 업무와 보험료 정산과 보수총액 산정 등을 하였다. 생소한 프로그램, 처음 접하는 단어 모든 것이 어설피고 실수투성이였지만 나는 사내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퇴근 후 매일 강의를 들으며 이론을 습득했고 실무편람과 규정집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의 기본기를 다졌다. 그리고 실무에서 선배들을 일일이 찾아가 모르는 것을 묻고 또 물었다. 내가 이론을 통해 공부한 것, 실무에서 직접 부딪혀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만의 노트에 차곡차곡 정리했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갔다.

그리고 간혹 악성 민원전화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나는 책상 앞에서 규정을 설명하기 보다 민원인을 직접 만나 설득하며 일을 해결하도록 했다. 가입지원부의 업무를 통해 4대 보험의 중요성과 복지혜택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뜻 깊은 일도 할 수 있었다.

물론 대민업무는 힘든 점도 분명 있다. 하지만 나의 역할이, 나의 직업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다. 나는 현재 직장인을 위한 주말강좌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할 준비하고 있다. 내가 20살 때 단순한 대학졸업, 학위 인정을 위한 졸업장이 아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직무지식 습득과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나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다.

아직도 하루에 7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다치는 산업현장. 1,436만명의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복지증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


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희망 버팀목 손○○이 되고 싶다.

학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졸 채용 할당제.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주는 영향력은 크다. 우리나라의 채용문화는 지금까지 능력 중심이 아닌 학력, 학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은 거의 필수가 됐으며 학벌주의가 만연하는 등 폐해가 생겼다. 최근 일고 있는 고졸 채용 바람은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학력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학력의 벽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알려주고 있는 역할도 한다. 또한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자신들의 재능을 살려 바로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크게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졸 채용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니 직장인의 75%, 상당수가 학력이 직장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 직종 선택의 폭, 차별, 능력평가 저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여기서 나는 학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학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력’, 직장을 구하기 위한 좋은 ‘학벌’ 여기서 학력은 나의 외적 설명서가 될 수도 있다. 증명서처럼 나의 과거의 면과 외적인 면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내적인 면과 미래의 잠재력을 설명할 수 없다. 학력이 나의 인성, 자질, 잠재력, 능력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영어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학벌이 좋다고,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무조건 일을 잘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학력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 객관적 기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본다. 통섭형 인재, 혁신적 인재, 창조적 인재... 시대에 따라 표현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회사가 원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높은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나도 고졸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합격한 동기들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살부터 많게는 30살이 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대졸 공채로 들어온 동료들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학력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장점과 능력을 살려 최선을 다해 업무에 충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했기에 대졸 사원들보다 더 인정받았고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어 가는 것,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학력이라는 단순한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 내가 임하는 태도와 자세, 업무 능력을 내가 어떻게 정립하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고졸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싶다. 우리는 적극, 역동, 능동으로 살아있다고.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7

네. 저의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우리 가족의 뜻하지 않은 불행...

저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IMF 외환위기로 당시 은행에 다니시던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했던 아버지는 경험도 없는 이런저런 사업을 시작하였고 연이은 사업실패로 결국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집안 사정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모든 사업을 접고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였고, 어머니 또한 식당 일을 하며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피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어려서 집안 사정을 크게 실감하지는 못하였지만 부모님의 늦은 귀가와 잦은 다툼 뒤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때 처음 우리집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 친구들이 다 가는 학원을 가지 못해도,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해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가난이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 힘든 시간도 어느덧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첫 번째로 후회 없이 선택한 길...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셨지만 비싼 등록금을 주고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워 빨리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률도 높고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등록금도 저렴한 편이라 선택하였으나 학교와 집이 멀어 학교에 들어가면 집을 나와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만 된다면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학교에 입학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랑 비슷하게 가정형편이 어려워 빨리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입학을 하긴 하였으나, 가만히 학교만 다닌다고 모두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고등학교 3년 동안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자격증 취득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한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차별을 두고 싶어 좋은 곳에 취업한 선배들의 조언을 듣던 중 학교 내에 기능올림픽 경기대회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능올림픽에서 입상을 하면 취업 시 남들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길로 동아리에 들어가서 수업이 끝나고 밤까지 남아서 훈련을 하고, 방학 또한 포기하면서 매일 밤낮으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훈련하였으나 2011년도 기능올림픽에 출전하여 입상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매일 밤낮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1년간 열심히 훈련하여 2012년 경북 기능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여 웹디자인 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 3년간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학교로 한 장의 공문이 날라 왔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라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졸 출신이면서 웹디자인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 자격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용공고 공문을 읽고 그 자리에서 든 생각은 “아, 이건 하나밖에 없는 기회다!” 저만을 위한 채용공고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경쟁률이 치열한 공공기관인 만큼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3차인 면접을 남겨놓고 정장이 없었던 저는 교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부모님께서 저를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정장 한 벌과 구두 한 켤레를 사주셨습니다. 우리 형편에 가격이 너무 비싸 입을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정장과 구두는 앞으로도 계속 입을 일이 생긴다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표정은 엄청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지만 최종 합격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부모님 얼굴을 볼까...”

마지막 면접을 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신입사원 교육일정은...” 저는 문자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합격 사실을 알리고 합격 사실을 들은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잘 됐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감동과 행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게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앞으로 걱정과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철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는 고등학생 시절과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설 틈 없이 울리는 전화, 책상에 쌓여있는 문서, 수없이 들리는 타이핑 소리... 조용한 건물 밖과는 달리 건물 안은 제가 생각했던 회사 이미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지식도 없었던 저는 간단한 심부름과 전화응대, 문서 복사와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저도 담당 업무가 생겨 저만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과에 대한 부담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일이 제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말로만 듣던 야근을 해야 했고, 실수를 하면 혼도 많이 났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뒤에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다 겪어봤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점점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보니 회사에 있는 시간도 평소와 같이 당연한 일상생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군 입대를 하다 보니 제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떠넘기고 군대로 도망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직장동료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직장동료들의 따뜻한 말과 함께 조심히 다녀오라는 격려를 들으면서 직장동료들도 또 다른 나의 소중한 가족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장을 입고 회사 생활을 하다가 머리를 밀고 군복을 입게 되었고 직장생활을 하던 온 저는 다른 전우들과는 달리 군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직장에서 배우지 못한 점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며 또 제가 직장생활 중 잘못된 점도 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9개월의 군대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다시 직장으로 복직하여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람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족을 위해 준비한 첫 가족여행...

그동안 우리 가족은 한 번도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부모님과 형이랑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준비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지금은 국내여행이지만 다음에는 꼭 한번 외국여행도 가족과 함께 다녀올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저의 최종학력은 고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며, 힘들게 노력한 만큼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신념으로 어떠한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꽃

홍○○/한국수자원공사

날씨는 춥고, 하는 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마음까지 시린 겨울, 대학생이었던 나는 결심을 했다.

‘그래, 자퇴하자.’

나는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목적 없는 삶의 대가

중학생 시절, 나는 평범했다. 성적도 외모도 평범하다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평범했다. 하나 특징이 있다면 자신감이 없었다. 나는 3학년이 되어 고등학교를 정할 때 생각했다. ‘내가 인문계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던 나의 대답은 당연히 ‘No’ 였다.

그래서 나는 편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로 진학 후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여 특별 전형으로 대학교를 가기로 한 것이다. 선택은 성공적이었다. 중학생 시절에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상위권의 성적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고, 자신감은 나날이 늘어갔으니까.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준수한 내신 성적과 자신감 있는 면접 태도로 나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

대학교를 가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었던 당시의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대학생활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대학에 입학할 때, 어떤 과가 적성에 맞을지, 나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왔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기에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었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지 않았기에 공부의 방향을 잡지 못했다. 학점은 점점 떨어졌고, 어떻게든 높여 보려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바깥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아는지 학생들은 쉽게 자신의 앞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직감한 나는 교내 상담센터 방문,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 가족과의 상담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 시야를 넓히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얻은 결론은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른 길을 찾아, 자퇴를 하기로 했다.

굳건한 바위처럼

학교를 도망치듯 자퇴하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나를 향한 시선이 마냥 따듯하지만은 않았다.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취업난 이야기 때문이었으리라. 취업 준비 초기에는 의욕에 불타 순조롭게 시험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고 취업준비를 하던 중, 민족 대명절인 설이 찾아왔고, 나는 뜻하지 않게 취업준비생의 기피 장소 1순위라는 명절날의 고향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날 왜 취업준비생들이 명절날의 고향을 피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내게 친척들이 아무런 악의 없이 물어보는 “요즘 뭐하고 지 내니?”, “시험 준비는 잘 되어가니?”라는 질문은 나의 못난 자격지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대학교를 자퇴한 너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라는 한 마디는 나의 불안감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나는 애써 웃어넘기고,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다. 그리고 그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나를 따라 나온 매형이 내게 해준 말은 정신없이 흔들리던 나의 마음을 굳건한 바위처럼 만들었다.

“니가 생각하기에 그 길이 맞으면 그 길로 가. 그리고 나중에 성공해서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큰소리 평평치면서 증명해.”

그렇게 나는 결과로 나의 길을 증명하겠노라고 다짐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 봄이 되고,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증빙서류부터 자기소개서, 시험, 면접까지 최종합격을 하기 위해선 준비할 것이 많이 있었다. 취업 준비 중 상담을 받을 기회가 딱히 없었던 나는, 세부계획이 발표되자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문득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생각났지만,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내가 대학에 잘 다닌다고 알고 계실 것이고, 대학생들과 군대생활을 합쳐 4년 가까이 연락 한번 하지 않은 내가, 정작 필요할 때 선생님을 찾는다는 사실이 내가 봐도 염치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혼자서 준비를 끝내고, 선생님에게 안부를 전하고자 연락을 드렸다. 선생님은 4년 전에 졸업한 나를 기억하고 계셨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선생님은 나의 상황에 대하여 알게 되셨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다.

그렇게 하게 된 선생님과 면담에서 선생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감이 잡혔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나를 반겨주신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도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시험날이 왔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행여나 아들이 시험장에 잘 도착하지 못할까봐 대전에 도착하면 꼭 연락을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도착했다고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남기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밥 따뜻한 걸루 챙겨먹고 들어가’

그 몇 글자 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멀리서도 날 챙겨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기운이 솟아났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마칠 수 있었다.

긴장을 푸는 자기만의 비법

시험 결과는 합격이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면접이었기에 기뻐할 겨를도 없이 준비를 시작했다. 예상 질문부터 그에 대한 답변, 답변에 대한 질문,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정말 철저히 준비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만 철저히 준비한다고 면접을 잘 볼 수 있지는 않다. 면접자가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장애물, 바로 '긴장감' 때문이다. 나는 긴장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모았고,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았다. 그리고 내가 낸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면접자가 긴장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면접관이 나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처음 보는 면접관에게 나를 어필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면접자의 입장에 있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소를 극복하기로 했다. 나는 면접을 보러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가는 동안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부터 서울역에서 만난 사람, KTX에서 만난 사람, 대전역에서 만난 사람, 버스에서 만난 사람, 면접장의 경비아저씨까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분들은 모두 나에게 한마디씩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씻는 듯이 사라졌고, 결국 면접실에서 웃는 얼굴과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합격했다.

고생의 다른 이름, 경험

나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취업을 하기까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에서 잠도 제대로 못자며 공부를 한 적도 있고,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결과에 좌절하며 마음고생을 한 적도 있다. 군대에서는 숨이 넘어갈 것처럼 힘든 육체적 고생도 해보았고, 상명하복의 관계가 확실한 분위기에서 선임과의 의견 충돌로 마음고생도 해보았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러 유형의 어려운 손님들도 상대해보았다. 그리고 이런 고생이 헛고생이 아니었음을 힘든 날마다 느낀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날에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버티내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날에는 나에게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한 거라고, 분에 넘치는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사람을 상대하다 지치는 날에는 내가 이런 사람도 만나봤는데 뭘 이런 일로 힘들어 하나며 기운을 내기도 한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각자의 고민이 다르다. 그리고 나 또한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기에 말을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내가 살면서 느낀 바를 말하고자 한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을 극복하고 나면, 그 고생은 경험이 되어 때로는 힘든 나를 받쳐주는 등반이,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두 멋지게 극복해내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IV

청년인턴



1

취업, 어렵다. 청년인턴은 아니다!

문○○/도로교통공단

이야기를 시작하며,

누군가에게겐 섬, 또 여행지라고 생각되는 제주. 내 인생의 제주는 첫 직장입니다. 이 글은 이곳으로 향해온 내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이며, 고등학교 졸업을 3개월 앞두고 지원한 도로교통공단의 체험형 청년인턴은 그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수기를 훗날 이제 막 인턴을 시작하는 후배에게 꼭 보여줄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살았던 제가 지원할 수 있었던 자리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본부 사고분석개선처의 고졸제한경쟁이었습니다.

No problem!

저는 고등학교에서 상업과 경제, 회계를 전공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회사, 부서와는 거리가 먼 분야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지원했을 때, 면접에서 대답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면접관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전산회계, 펀드투자,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약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업무가 무엇인지는 아느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통사고조사와 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고분석을 주로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자격증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향한 열정과 추진력을 경험했고,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이 없지만,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제가 앞에 말한 부분을 바탕으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입을 떼기 시작한 저는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에 도전하며 느꼈던 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단언컨대 잘한 답변이고, 면접의 향방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여 기억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열정, 추진력, 가능성, 믿음과 자신감이 저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던 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말하는 단어들이지만 저는 생생한 체험 속에서 저의 키워드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서

평범한 고등학생에서 공단의 청년인턴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벅찬 마음에 사무실 조직도를 펼친 내 자리를 카메라로 찍은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심취하는 것도 잠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제원을 공단 DB에 입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대한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포토샵을 활용하여 입력하며, 훗날 이 데이터를 활용할 선배님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5개월간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업무였습니다.

두 번째, 각 지방조직으로 보내는 서류 송부입니다. 용역사업계약을 위해 필요한 법인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각 지방 조직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항상 정성스럽게 담아”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을 담은 봉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그 봉투를 받았던 선배님을 만났 적이 있습니다. “○○ 씨였어?” 그 분의 표정을 보고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면 우리 부서는 책을 만듭니다. 대형교통사고 분석사례집,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업계획 및 진단보고서, 각 지방조직의 연간 데이터를 취합하고 편집하는 일이 저의

세 번째 업무였습니다. 편집이지만 문서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글쓰기의 중요성을 알아 더 연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집필진에 들어간 제 이름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교통사고조사전문 연구원들을 지원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인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일들이었습니다.

말이 칼보다 강하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통해 선배님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신뢰가 쌓아진 후에야 인턴과정에서 행동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힌트를 주셨습니다.

첫째, 공문서입니다. 공공기관은 공문서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기에 공문서를 자세히 보면, 제가 직접 일을 맡지 않더라도 우리 부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전체 공단의 방향이나 타 부서까지도 시야를 넓혀 공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문서의 짜임이나 구성을 보며 훗날 제가 쓰게 될 문서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인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인사가 좋아 칭찬을 자주 받았습니다. 저의 성격이기도 해서 선배님들에게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어느 날 칭찬과 함께 시작한 선배님의 말씀은 강한 촉진제였습니다.

“더 많이 해. 사람들이 널 기억할 거야”

몇 개월 후에 보지 못할 사람들이라도 밝은 모습으로 잘 기억한다면 기쁜 일입니다. 저는 지나치는, 스치듯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환한 얼굴로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마주쳐 인사했던 다른 부서 선배님들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일하느냐, 언제 입사했느냐. 저는 자랑스럽게 “사고분석개선처 인턴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부서를 빛내는 유일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도로교통공단 정규직 최종면접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이 하십니다. 저는 면접 당시, 몇 개월 전에 익혀놓은 내부위원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사를 드리며 마주

본 얼굴은 큰 힘이자 위안이었습니다. 면접관님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 습니다.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덜 긴장했고, 자신이 넘쳤습니다. 평소의 밝은 인사가 불려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선배님의 말 한마디를 놓치 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처럼, 어느 차장님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초임은 제주도도 괜찮아, 멀리 갔다가 나중에 올라오면 되지!”

저는 신규직원 채용에서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 지원했습니다. 희망지도 적었고 이동 시간과 경쟁률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문득 저 한마디가 없었다면, 제가 겁 없 이 제주도로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5개월 계약직이 아닌 멘티였다

인턴 생활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인간관계, 직장 내 분위기에 따 른 사람들의 행동, 말하는 방법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를 배우고 느끼는 데 필요한 것은 선배의 관심입니다. 구성원이 곧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칸막이는 낮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인사교육처에서는 청년인턴 및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직원은 멘토, 인턴은 멘티가 되어 맺어집니다. 강제적인 관계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멘토에게 주어진 책임감에 멘티는 성장합니다.

인턴은 혹여나 선배님께 방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다가와 주는 멘 토가 있었습니다. 어깨너머로 업무를 배우기도 하고, 사무실을 떠나도 혼자가 아니었습 니다. 멘토링 시스템은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인턴에게 뻗어주는 팔과 같습니다. 쓸 쓸하고 허전할 수 있었던 저를 향한 따뜻한 포옹과 같습니다.

또 다른 나를 위하여


사실 고졸 학생들은 계약직 인턴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병역문제, 대학 진학이라는 숙제, 정규직에 대한 희망, 기대감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고민했습니다. 5개월이 주는 영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인턴 기간 중, 그리고 지금까지도 갓 졸업할 후배들에게 이 경험을 추천합니다. 5개월 계약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싶습니다.

정규직 채용시험에 90% 영향을 준 인턴생활이었습니다. 입사지원서에서 보여줘야 할 나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2차 필기에서는 시험과목에 대해 미리 알아 일찍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인턴 면접 당시의 경험으로 저의 장점과 부족한 모습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와는 다르게 직무능력을 더 표현할 수 있었고, 업무와 현장을 알았기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졸업증이나, 자격증이 다가 아닌, 스펙을 초월한 요즘에 이보다 더 중요한 역량, 경험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알차게 보였던 5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능력, 대인관계 등 모두 성장했습니다. 사회에 나올 준비를 비로소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숙제도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선배가 되어 갓 시작하는 청년인턴에게 내 경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멘토와 멘티의 연장선, 계속 이어지는 문화가 또 다른 나를 만들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취업에 성공하고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저 기쁘기만 했던 저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며 더 계획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은 상태이고, 군대는 현재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다음에 갈 계획입니다. 소중한 청년인턴의 경험과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하고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2

나무 심던 청년인턴, 화폐를 만들게 되다

배○○/한국조폐공사

청년인턴의 시작은 인도네시아에서부터

2014년, 삼림과학대학 임산공학과, 취업이 잘 된다는 전화기(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과가 아닌 취업 비주류 학과에 다니는 나에게 취업고민이 시작된 시기였다. 취업이 잘된다는 다른 학과로의 전과, 대학원으로 도망치듯 진학하며 떠나는 동기들을 보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전공을 살리자’로 취업의 모토를 정했다. 그러던 중에 접하게 된 것이 산림청 해외인턴 프로그램이었다.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험까지 얻을 수 있는 1석 2조의 인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녹색사업단으로 배정받아 6개월간 해외조림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다. 도시가 아닌 나무를 심는 조림지, 오지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다. 비위생적인 음식 때문에 몇 달 동안 배탈이 났었고, 매일매일이 35도였던 습하고 더운 인도네시아의 날씨, 설상가상으로 시골동네에서는 영어도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못 먹는 음식이 없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어로 목적지를 설명해 택시도 타고 출퇴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가지고 돌아온 것은 직무경험과 어디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취업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와 4학년이 된 내가 인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인턴한 데서 취업 안 시켜준다니?”라는 말이었다. 내가 근무했던 녹색사업단은 채용으로 바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공채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인턴생활을 훌륭히 수행하지 못해서 인턴만 하고 돌아왔다는 질타를 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고생했고 보람 있게 느꼈던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을 절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취업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러 해외조림을 하는 회사들이 있다. 조림지에는 원래 그 땅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있고, 조림업체는 그 땅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종종 생긴다. 나는 녹색사업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불만을 가진 현지인이 우리 조림지 쉼터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녹색사업단에서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천연림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했다. 또한 현지인들이 조림지에서 일할 수 있게 더 많이 교육시키고, 채용했다. 일터를 빼앗지 않고 그들과 상생하려는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고 공공기관에서 자연과 사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키웠다. 그렇게 ‘전공 살리기’와 ‘공공기관’이라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취업을 준비했다.

청년인턴, NCS로 빛을 발하다

단순한 경험으로 묻힐 뻔 했던 나의 청년인턴 경험에 빛을 보게 해준 것이 NCS였다.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인턴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NCS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인턴을 했던 인턴 동기들도 취업과의 연계성이 적은 것을 인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었다. 하지만 혜성처럼 나타난 NCS 제도 덕분에 나의 인턴 경험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NCS의 취지가 능력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인데,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던 나에게는 인턴경험까지 더해져 더할 나위없는 기회였다. 그때 NCS를 기반으로 채용하는 한국 조폐공사의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조폐공사에서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여권 등 ID 사업, 기념주화, 상품권 사업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집중한 것은 은행권과 상품권 등 종이류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임산공학과에서 공부한 것이 ‘제지’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맞춰서 관련 경험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 합격할 수 있었다.

NCS기반 필기시험은 시행 초기라 정보가 부족해 NCS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공부했다. 실제 업무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예시문제를 풀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나와서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기존의 인적성 시험과는 달라져서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업무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유형을 터득하다 보면 스킬이 생기고 기존의 시험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 또한 NCS기반 면접이었는데, 내가 자소서에 제출한 제지수업, 제지실험 경험을 토대로 한 질문이었다. 나의 직·간접 경험을 조폐공사의 제지공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이어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깊이 있게 생각을 얘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2016년 봄에 꿈에 그리던 ‘최종합격’ 글자를 보게 되었다.

‘한국조폐공사’가 나의 회사가 되다

조폐공사에서 시작하는 두 번째 인턴생활은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채용형 인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쟁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내가 원하던 공공기관에 입사한 것이 너무 기뻐다. 입사 후 기술처 품질경영팀에 발령을 받아, 전공인 제지 품질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조림지에서 나무를 심고 조폐공사에서 그 나무로 제품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업무에 있어서는 품질관련 데이터 관리, 품질경영시스템 재구축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었다. 품질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폐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신력’이라는 생각을

했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공신력을 지키는 첫 번째이고, 스스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또 실천했다. 그 결과 인턴과제, 및 면접 평가를 거쳐 드디어 정규직이 되었다.

신기하게도 내가 들어갔을 때 조폐공사에서 인도네시아에 은행권 제품을 수출하게 되었다. 내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사용하던 실제 돈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내 경험들이 어느 하나 쓸모없는 게 없었다고 생각하니 더 뿌듯한 마음이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을 것 같고 어떤 도움이 될까 의문스러웠지만, 결국은 해외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채용형 인턴이 되고 지금은 조폐공사가 나의 회사가 된 것이다.

제언: 해외인턴에서 채용형 인턴까지

해외인턴 프로그램은 직무경험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생활, 또 기업의 입장에서 타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취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긴 인턴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것 같다. 그 당시 인턴 동기들의 대다수도 취업과의 연계성이 적은 것을 해외인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으로 뽑았었다. 2016년 현재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채용형 인턴제도가 있어 나도 그것을 활용했고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또 NCS 제도가 도입되면서 청년인턴제도 또한 같이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인턴을 통해 직무경험을 쌓고 직무능력 중심인 NCS 채용에 지원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에서도 NCS에 맞춰 능력중심 인재를 선발해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이나, 직무가 맞지 않아서 이직하는 사람의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NCS 제도의 특성상 개인에 따라 단기간에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미 수행했던 인턴이나 관련 교육 경험, 직무 경험 등을 NCS에 맞춰서 채

용공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NCS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NCS 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NCS를 통한 취업뿐 아니라 목표에 두었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NCS 제도를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무를 찾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상(飛上): 애벌레에서 번데기, 그리고 나비로

해외인턴이었던 애벌레 시절, 채용형 인턴인 번데기 시절 그리고 NCS를 통해 나비로 탈피해 신입사원이 된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곳을 바라보며 비상하려고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곳을 바라보고 가면 언젠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의 인턴생활 끝에 취업하여 얻은 결론이다. 나만의 방법으로 경험을 쌓고 활용한다면 공공기관으로의 취업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해외인턴이 아니었다면, NCS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조폐공사의 일원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준비해 온 날개를 펴고 비상할 때이다. 비상하자! 

3

청년인턴, 어둠속 나침반이 되어준다

정○○/한국수자원공사

어둠속 찾아온 기회

취업이란 나에게서 그저 막연함이었다. 취업에는 ‘어떻게’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다. 정해진 매뉴얼이 없었고 저마다의 취업성공 스토리 또한 달랐다. 그렇기에 나는 어둠속 들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방향을 정할 수도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 나에게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청년인턴 모집공고. 청년인턴 지원은 시간낭비라 생각했던 나지만 취업난 속에서 길을 헤매다 우연히 발견한 청년인턴은 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

‘취업준비가 어려운 까닭은 당장에 내가 취업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 일을 하기 위해 현재 내가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막연한 추측만 있을 뿐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스치면서 스물넷의 나이에 취업에 너무 조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에 의미 없는 취업이 아니라 내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이고 청년인턴을 통해 직무를 경험해 보는 것이 이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회를 잡아라

청년인턴의 길도 쉽지만은 않았다. 9,000명의 지원자를 뚫고 1차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방향 설정’이라는 작은 목표를 세운 탓일까, 관문은 높았지만 의지는 불타올랐다. 매일 열 시간, 그렇게 한 달을 시험 준비를 하였고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임을 한 번 더 느꼈다. 그것은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면접 전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읊조리던 그 순간의 나의 뜨거운 열정과 기분 좋은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당당히 청년인턴에 합격하였고 간절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진부한 말과 닿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맴돌았다.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채찍질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잘해내리라 다짐했다.

두 가지 가르침

어떤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들어선 본사에서 내가 맡게 된 업무는 에너지 진단이었다. 에너지 진단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의 손실 요인을 찾아 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이었다. 여성으로서 이러한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생각에 커리어우먼이 된 것 같은 뿌듯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하였다.

인턴활동을 하며 업무적으로 가장 크게 배운 두 가지는 첫째, 모든 업무는 법률과 사규에 근거하여 시행된다는 것이다. 에너지 진단업무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진단대상, 진단주기 등 구체적인 내용도 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앞서 법률 및 사규를 먼저 확인하여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함을 깨달았다.

두 번째는, 에너지 진단에는 전기설비 파악능력과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보유한 에너지 진단장비 28대 중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전력분석계 사용법을 배우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장비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을 보고 전기설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장비로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업무경험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필요한 능력은 전기설비에 대한 이해와 도면 해석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고 전기기사 공부에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는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이 입사를 위한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가왔다.

뜻밖의 가르침

인턴활동을 통해 배운 뜻밖의 것도 있다. 바로 사람관계이다.

왜 그렇게 면접 때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직장동료는 업무적으로만 얽힌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해보니 동료와의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했다.

회사의 조직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커피 한 잔을 사주며 힘든 점은 없는지 물어봐주는 동료, 업무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라는 동료. 이러한 관계가 건강한 직장생활과 업무효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비로소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이란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인턴경험은 수자원공사의 이미지에 대한 나의 생각도 변화시켰다.

첫째는, 보수적인 이미지이다. 생각과 달리 수자원공사는 많은 의견을 팀원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비도전적인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달랐다. 수자원공사는 크게는 해외사업 진출 등 시장 개척에 앞장섰으며, 작게는 많은 직원들이 업무개선과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내 길의 끝을 향해

3개월간의 직무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았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쌓아야 하는지 확실해졌다.

전기기사 자격증,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은 더 이상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발판임을 알았다.

어쩌면 인턴 전과 후에 내가 준비하는 것들은 비슷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목표이다.

수도·전기분야의 Only one 엔지니어

나는 수도·전기분야에서 대체될 수 없는 엔지니어가 되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속한 동반성장진단팀 에너지사업과의 주업무인 에너지 진단을 수행하며 체계적 교육과 선배님들의 기술전수를 통해 기술력을 키워갈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으로 수도·전기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와 연구도 해보고 싶다.

목표를 세우고 걸었던 탓인가. 엄청난 경쟁 속에서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였다. 나는 더 이상 방향을 알 수 없는 어둠속 들판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인턴이라는 나침반을 통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게 되었다.

더 나은 인턴 채용시스템을 바라며


인턴생활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지만 기회의 폭이 좁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인턴 채용의 문은 사실상 정규직 채용보다 좁다. 그렇다 보니 경험을 쌓으려 인턴에 지원하지만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경험이 없으면 인턴을 하기 힘든 역설적인 현실에 놓여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이들이 인턴을 통해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턴규모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인턴 채용 시 스펙보

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정규직 채용과 차별화된 채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길을 잃은 후배들에게

취업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나의 앞길이 까마득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다면, 인턴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비록 인턴경험을 통해 이 직무가 나랑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버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취업난 속에서 조금해하며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돌아가는 듯해 보여도 인턴을 통해 직무경험을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4

청년인턴으로 삶의 큰 밑그림을 그린다

이○○/국민건강보험공단

더 나은 우리 삶을 위한

저는 도서관에서 스펙 쌓기에 몰두하기보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는 꿈 많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외활동, 학생회, 동아리, 봉사활동 속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다니며 잘할 수 있는 일을 매일같이 고민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년 6개월 동안 저소득층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서 삶의 가치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900여일을 온전히 봉사활동에 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필리핀 교류수학 당시, 불치병에 걸린 아동들을 만났고, 현지인에게 이들이 선천성 피부병의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고 대부분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ome on, go to the hospital, please. Is there health care system here?”라는 질문에 제도가 낯선 현지인 친구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놀랍고 부럽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건강보험제도가 타지에서는 굉장한 사회제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마운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곳곳에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마음먹기 나름

인턴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야?”였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인턴해서 뭘 배우겠냐는 말과 시선에 속상한 마음을 감추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반기 채용절차가 열려 있다는 대답으로 대신하곤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인턴생활이 짧은 근무기간에 불안정한 근무형태라고 여겼지만 저에게 청년인턴은 사회생활의 첫 단추인 만큼 너무나도 소중했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2016년 7월 13일 청년인턴 최종 합격자 발표 당일, ‘직위에 상관없이 작은 일일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훗날 뒤돌아봤을 때, 지난 5개월의 시간이 더없이 값진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생활하자!’는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인턴이었지만 잠깐 공공기관에 머물렀다 갈 사람이 아닌,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징수부 팀원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일주일 동안은 직원분들의 얼굴과 부서 내 분위기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목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징수부 첫 인상 만들기입니다.

좋은 인상을 가진 징수부

건강보험의 공간을 채우는 징수부에는 체납처분 및 독촉 등으로 악성민원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얼굴을 붉힌 채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친 내방민원을 응대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에 불만고객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인 응대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제 자리는 사무실 입구에 위치하여 내방민원과 가장 먼저 눈을 마주치는 곳으로 민원인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을 대하고 밝게 인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인 편에서 도움을 드리려 애쓰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낀 고객들이 하나둘씩 늘었고, 그럴 때마다 뿌듯함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후배 청년인턴을 위한 업무 매뉴얼

징수부의 업무는 고객상담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대고객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함을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깨달았습니다.

업무 초기,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납부 독려를 할 때였습니다. 당시 한정된 업무지식으로 설명하다 보니 과장님께 민원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는 고객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저 뿐만이 아닌 앞으로 입사할 청년인턴을 위해 50페이지짜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 후 제한시간을 설정해 훈련했습니다.

정책제언: 0에서 시작했던 업무

미숙한 인턴사원에게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매뉴얼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잠시 들렀다 떠나가는 인턴사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원들 속에서 인적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기적인 관리 및 교육을 위한 매뉴얼은 꼭 필요합니다.

입사 후 인턴사원을 위한 교육은 30분 정도였고 눈치껏 움직이고 소신껏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는 0에서 시작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씩 해결했을 때 빛을 발하지만 5개월의 기한부 사원은 배움을 압축하여 신속히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도는 사원이 아닌 조직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고객응대 시 놓치는 내용이 없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칭찬을 받거나 담당 업무가 많아질 때마다 일을 믿고 맡겨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했고 제 노력에 따라 새로운 능력이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문제발생 빈도 수를 줄이기 위해 민원처리 일지를 만들어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황별 응대방법을 몸소 익혀 매일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연계성이 높은 징수부에서 민원인들은 부과와 자격에 관한 질문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매달 14개 과목의 자격과 부과과정 직무교육을 신청하여 민원인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누군가 과거로 돌아가 다시 청년인턴을 할 거냐고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 추천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인턴은 업무를 배울 수 있는 발판입니다. 담금질로 다져진 쇠뿔치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쉽게 흠집이 나지 않듯 청년인턴제도 또한 앞으로의 긴 인생에서 곳곳이 버틸 힘을 길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회사 전체의 분위기와 각 부서 간의 연계업무를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공단인의 모토를 확고히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생활 가까이에 녹아 있는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에 대해 깊이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회학이 전공인 저에게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친숙하였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들까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납부의무자로서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사회보장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의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직생활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떤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며 때로는 딸처럼 아낌없이 격려해주신 제주지사 직원분들이 있기에 하루하루의 출근길이 행복했고 행복합니다. 능수능란한 업무처리를 어깨너머로 배우며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공단 직원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

달았습니다.

이제 출근할 날이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청년인턴으로 그린 커다란 밑그림 뒤에 펼쳐지게 될 생활이 너무나도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채색하기 위한 다채로운 물감을 얻으러 오늘도 부지런히 달리겠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 

5

막무가내 신입 인턴이 상업운전 유공직원이 되기까지

강○○/한국동서발전

“유공상 1, 발전 전기원 강○○

해당 직원은 당진 9, 10호기 준공 및 상업운전에 공헌한 것이 크므로 이에 공적을 치하함”

지난 11월 3일 당진 9,10호기 준공 및 상업운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신입사원급치고는 흔하지 않은 수상이라고 다들 축하해 주었다. 그렇다. 아무 것도 모르는 막무가내 신입 인턴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그런 내가 사장상이라는 유공 직원 1등급 수상을 하다니 작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작은 희망이 되어준 또 다른 기회-청년인턴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뒤늦게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전기, 그 중에서도 발전분야였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 책에서만 배우는 이론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들이 너무 궁금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보다 시작은 느려도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했다. 자격증, 한국어사, 영어 점수 등 조금이나마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유익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남들보다는 늦게 시작된 꿈을 위한 나의 도전은 치열한 경쟁 가운데 수많은 기회를 놓치며 점점 내가 가지고 있던 초심까지 흔들리게 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발전분야에서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사실 환상 속에서만 있던 전기발전분야의 최고의 엔지니어라는 내 꿈은 어느새 진짜 환상으로만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청년인턴은 내 꿈을 위한 작은 희망으로 다가왔다.

보일러가 뭐지요? 단순히 물만 끓이는 것 아닌가요?

가정 형편상 나는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은 순탄하지 않았다. 내 적성과는 맞지 않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정규직만을 찾아서 매달렸었다.

하지만 전기발전분야에 대한 나의 갈망은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4년 3월, 나이 서른 하나에 한국동서발전 청년인턴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노크하게 되었다.

서류전형 및 2차례의 실기전형, 2차례의 면접전형을 거치면서 결국 청년인턴에 합격했다. 70%만이 추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 조건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전기발전분야에 다가섰다.

당진화력 9,10호기 보일러 제어원으로서 시작한 나의 청년인턴 생활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었다. 처음 출근하여 회사 내의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보일러가 무엇인지 어느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자신 있게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선배님은 보일러 제어는 단순히 증기를 만드는 것을 떠나 발전 출력을 내는 것에 있어 총체적인 제어라고 하셨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 보일러 제어가 발전전기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수많은 Logic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청년인턴 기간을 통해 나의 진짜 적성을 찾다

5개월 동안의 청년인턴 기간이었지만 나의 부서의 선배님들은 직접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회사의 선배님들은 직접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셨다. 그러한 기회를 주셨기에 환상 속에서만 있던 전기발전분야에서도 수많은 분야가 있고 특히 보일러 제어를 배워가면서 진정 내가 찾던 적성에 꼭 맞는 일인 것을 깨달았다.

청년인턴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인턴의 경험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업무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나의 청년인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계속 보일러 제어를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는 소망 속에 5개월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내가 소속된 당진 9,10호기는 건설 중인 신규 발전소로서 시운전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막무가내 인턴 생활이 어느덧 금세 지나갔다.

보일러인데 불을 붙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

5개월의 인턴 생활이 마무리되고 정규직 전환 평가 과정을 거쳐 막무가내 인턴사원이 막무가내 신입 사원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인턴 생활을 한 당진 9,10호기 보일러 제어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게 된 나는 행운아였다.

신입사원으로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시운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아직도 당진 9호기 초기 점화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과정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Light-Oil을 이용하여 초기 점화와 Minimum 출력을 시운전하면서 보일러에 불을 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다. Logic을 고치고 현장을 수백 번을 왔다갔다 하고 기계/전기 설비가 준비가 완료되는 업무 시간 이후에 우리 보일러 제어 파트는

밤을 친구 삼아 항상 수많은 밤샘 시운전을 했다.

수많은 야간 시운전과 보일러가 Trip이 되기도 하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나는 누구보다 즐거웠다. 힘든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최초 1000MW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의 시운전이라는 사명감도 나를 지탱해 주는 큰 힘이 되었다.

초기 점화/석탄 투입 점화/보일러 정격 출력을 비롯하여 수많은 보조 감시 설비 정상화까지 지나긴 시운전의 기간들이 올해 10월 끝나게 되었다.

준공이 되었지만 지속적인 보일러 제어 최적화에 나는 지금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생활하고 있다.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알고 싶은 것이 넘쳐나는 분야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 꿈은 최고의 보일러 제어 엔지니어

정규직 전환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이 내게 한 마지막 질문은 회사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냐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나는 “최고의 보일러 제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 대답은 단순히 면접용 대답이 아닌 나에 대한 약속이자 나를 믿고 지지해준 선배님들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했다.


부족한 내가 준공 후 유공 직원으로서 기대하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이제 도움만 받던 사람에서 도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청년인턴 시절부터 나에게 기회를 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많이 배가 고프다.

더욱 많이 배우고 성장하여 나의 선배님들이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중에는 내가 나의 후배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꿈을 찾는 것에 길잡이가 되고 싶다.

보일러 제어는 정말 무궁무진한 즐거움이 있다. 많은 책임감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분

야지만 나는 한국 동서발전의 일원으로서 보일러 제어분야의 최고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6

39,800원, 이○○입니다

이○○/신용보증기금

“왜 항상 중소기업은 힘들다고 말한다 생각하는가?”

청년인턴 면접 당시 받은 질문입니다. 면접에서 저의 장점과 활동 이력들만을 아심차게 나열했던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얼버무리는 저에게 면접관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닌 중소기업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면접을 망쳤구나 하는 걱정보다 이곳에서 꼭 일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들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란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객인 중소기업을 진실로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시되는 곳. 제가 만난 신용보증기금의 첫 인상입니다.

39,800원 인턴

저는 신용보증기금 영등포지점 및 마포지점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제 별명은 39,800원이었습니다. 39,800원은 홈쇼핑에서 가장 많은 완판을 이끌어 내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맡은 일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인턴사원이 되라는 뜻에서 팀장님께서 붙여주신 애칭입니다.

하나 청년인턴으로 보낸 5개월은 결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업무는 기존에 발급된 신용보증서의 기한을 연장(조건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재발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안내부터 고객님이 지점에 내방 후 보증서를 발급하기까지가 전부 저의 몫이었습니다. 업무를 통해 새로이 알게 된 점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보증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출보증 이외에도 상거래담보보증, 유동화회사보증 등 중소기업과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부도가 나더라도 기업이 연쇄도산의 우려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매출채권보험은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신규보증 지원을 위한 현장 조사에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 조사란 보증심사 절차 중 하나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보증신청 기업의 영업 현황, 성장가능성, 보증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기억에 남는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창업기업 ‘씨앤아이솔루션’입니다. 당시 대표이사가 여성분이었는데, 사실 제조업의 경우 여성이 대표자로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 현장 방문 전까지 실제 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와 만나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서부터 경영상의 애로사항, 향후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업을 키워나가하고자 하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반성하게 된 순간입니다. 나아가 기계 속에서 원자재가 가공되어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모습을 직접 지켜보기도 하였고, 기업 내 부설연구소에서 법인이 보유한 특허에 기반을 둔 기술이 시현되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현장조사를 통해 대표자의 경영능력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검토하고 서류만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심사란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살펴야 하

는 것이란 멘토 차장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변화의 5개월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과정이 매력적인 첫 번째 이유는 인턴이라고 하여 단순한 ‘paper work’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턴 또한 기금 직원들이 실제 수행하는 일을 직접 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필요로 하여 채용했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보증이란 개념이 생소하기도 하고, 각 보증상품에 적용되는 특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 멘토링 프로그램>과 <집합 연수>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무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질문이 자유롭고 직접 규정을 찾아보면서 해당 보증상품의 특성을 이해하며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생각’하며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업무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IT 부서에 조건변경신청서의 선택적 인쇄가 가능하도록 건의한 것입니다. 이 건의안은 받아들여져 실제로 시현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중복 인쇄를 방지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턴의 목소리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애사심도 더욱 커져갔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고객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도소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중소기업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동향이나 경제 트렌드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어 취업 준비 전보다 더욱 열심히 신문기사를 읽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보증서 연장 심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직접 만나 봐야 합니다. 사장님의 인생사가 녹아 있는 경영철학을 듣는 기회도 있었고, 창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꿈에 부풀어 오른 젊은 청년의 패기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객님들을 직접 대면하고 나니 비로소 면접관님이 왜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체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 다

는 자긍심, 이것이야말로 5개월간 저를 채찍질한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이젠 39,800원 사원으로

신용보증기금 신입사원으로 보낸 시간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종 합격 전화를 받고 학교 도서관에서 눈물을 푹푹 흘렸던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입사 후 스스로와 약속하였습니다. 인턴의 초심을 잃지 않는 직원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만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았기에 지금 현재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전히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에 용기 내어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9,800원 신입사원 이○○입니다.” 

7

나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활용기

나○○/도로교통공단

최근 공공기관 수기 공모를 접했다. 그리고 청년인턴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막상 수기를 적으려 하니, 그동안 짧지만 치열했던 나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온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PD였다. 하지만 두려웠던 그 길을 대학시절 잠시 꿈꾸었던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당시 모두가 맹목적으로 준비하던 공무원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나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다시 취업이라는 길을 들어섰고, 나는 두려웠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누가 뽑아 줄 것인가?'라는 반문에 나는 내 스스로 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곁에 있던 지금의 아내가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제안했다. 당시 청년인턴은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나이 제한에 가까웠던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몇 번의 면접 실패 후에 나는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 체험형 인턴으로 들어갔다.

내 생애 첫 직장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공부만 하던 나에게 직장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직장동료와의 관계와 고객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좀 더 몰입성 있게,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서 주변인의 마음을 얻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밝게 일했다.

나의 업무는 생소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면허취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사회 취약계층의 면허취득을 도왔다.

늦은 나이에 인턴을 시작한 만큼 남들과 다르게 일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면허취득과정에 대해서 미리 영어소개를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면허취득과 면허교환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시험장에서 다들 기피하는 업무였기 때문이었다.

외국인의 칭찬 글(도로교통공단 칭찬합시다 게시판)

● Thanks for the good service

▶ 작성자	GEROKOSTOPOULOS EVANGELOS	▶ 등록일	2013-01-28 10:03
▶ 조회수	123	▶ 이메일	비공개

Dear Sirs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for the perfect service I had during my visit Koroad in Na-ju offices.
 That time i feel that i was very lucky person because i met in reception Mr Na who working as receptionist and with his perfect spoken english make me feel safety!!!
 I am from Greece and i get the Korean Driving License and with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for Mr Na for the good service that i had during the course of my examination days
 Many Thanks

Best regards
 Gerokostopoulos Evangelos

나의 열정에 주변 동료들이 인정해주었다. 인턴 5개월 차에 계약직이 되었고, 한시적이었지만 나에게 드디어 취업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방송직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나의 꿈이 PD 였기에 도로교통공단에 교통방송이 있다는 것은 퇴근 후 매일 독서실로 향하는 동기 부여가 되었다.

열심히 공부했고, 2013년 7월 15일자로 나는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 방송 직 PD입사에 성공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나에게 굉장히 고마운 제도다. 공무원 시험 실패 후, 아무것도 없던 흡수저에게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다. 또한 인턴으로 일하면서 도로교통공단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채를 준비 하여, 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에서 PD로 일을 하고 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과정으로 나는 꿈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나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인턴 경험이 반드시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취업으로 가는 문을 두드릴 수 있다. 공공기관을 경험한다면, 다른 공공기관의 업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사내 멘토링제도를 통한다면 취업뿐 아니라 인생에 관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보다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덤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다른 꿈을 펼칠 수도 있다.

취업의 꿈을 펼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청년인턴을 지원해보자!

두드리자! 그러면 열린다! 

8

청년인턴 5개월, 非전공생의 금융맨 거듭나기

김○○/한국주택금융공사

며칠 전 업무 협의차 증권사 관계자 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신입인 나는 팀장님과 과장님 옆에서 조용히 말씀을 듣는 자리였기에 별다른 부담 없이 참석했다. 안 부인사와 요즘 시장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가던 중, 증권사 직원분께서 내게 “김 주임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직장에 오게 되셨어요? 실력이 정말 뛰어나신가 보네요”라고 물었다. 나는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웃으며 넘겼다.

이렇게 의례적인 대화는 입사 후 종종 있었지만 그 날은 왜 그랬는지 퇴근 후에도 그 목소리가 머리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스스로 그 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취업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분한 얘기를 듣는 날이 온 것일까.

사실 나는 대학에 입학할 때에는 금융분야에 대한 진로를 꿈꾸지는 않았다.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졸업을 얼마 앞두고 금융분야의 여러 인사를 모셔와 세미나를 듣는 수업에서 금융권에 대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다 보니 지금껏 내가 공부해왔던 전공이 금융권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상당히 의기소침해졌던 기억이 있다.

이런 경험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일 것이다. 대학에 입학할 때 진로와 무관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더구나 입학 후에

희망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학교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전공에 대한 낙인도 강한 편이기에 이를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관련 경험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로 준비하던 시험에서 경제학 공부를 계속 해왔던 나는 필기시험에 대한 자신은 있었다. 하지만 필기시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서류 합격이 꼭 필요했고, 용케 필기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이 분야에 대한 나의 경험, 나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이러한 고민들로 심란해하던 작년 여름, 나는 주위로부터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제도에 대해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청년인턴제도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이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능력과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5개월 동안 회사에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내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나는 ‘한국예탁결제원’ 청년인턴에 지원하여 2015년 7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로벌서비스부로 발령받아 그동안 책에서만 보았던 증권시장 및 증권이 발행, 유통되는 과정을 실제 업무를 통해 경험하면서 금융업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당시 국제 자본시장의 핫이슈 가운데 하나가 ‘대중국 비즈니스’였는데, 내가 속한 부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안화적격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제도’에 대한 실무 작업이 한창이었다. 나는 팀원들을 돕는 한편 각 은행에서 제공되는 중국자본시장의 예탁결제제도와 외국인의 중국시장 투자관련 제도에 관한 제도들을 번역하고, 이 자료들이 팀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여 제도 및 시스템 구축에 노력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생소한 용어들, 그리고 그보다 더 생소한 자본 흐름 구조들을 직접 익히는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지만 뉴스에서 짙막하게 나오는 한 줄의 경제기사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 과정의 일원이 된 것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다.

물론 항상 여유롭고 즐거운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작년 7월 중국 증시가 폭락하여 상해, 심천의 많은 주식들이 ‘거래정지’까지 당한 일이 있었다. 팀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팀원들이 다른 업무로도 매우 바빠 상황이 급박했고, 나는 비록 인턴 신분이었지만 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안의 기초자료를 작성했다. 특히 중국 증시에 관한 각 연구소의 분석을 입장별로 정리하였는데 이러한 구성이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어 팀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이란과의 수교 재개에 따른 이란 중앙예탁결제기관(CSDI)와의 업무 조율 등 굵직한 일들을 거치며 다양한 분야의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인턴으로 일하면서 얻은 것은 단지 이러한 실무경험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년인턴 경험은 나의 첫 사회경험으로서 조직생활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군 생활을 하면서 조직생활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회사생활은 군대와는 또 달랐기에 이때의 경험이 이후의 취업 과정과 취업 이후의 회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전화를 응대하는 방법, 회의 장소 등을 예약하는 방법, 윗사람을 대하는 방법 등은 전문적인 실무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회사 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로서 청년인턴의 경험을 통해 지금 회사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취업에서 학점, 영어점수 등의 소위 ‘스펙’보다는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는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의 반영일 것이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이 취업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설사 성격이 조금 다른 공부를 해왔더라도 그 나름의 능력을 발휘하여 기업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공이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하여 지원자를 미리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 역시 지원자의 역할이며 청년인턴은 그러한 면에서 지원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NCS 기반 채용을 채택하면서 자기소개서에는 학점이나 영어 점수 기재란이 사라지고 대신 관련 분야의 경험을 적도록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주택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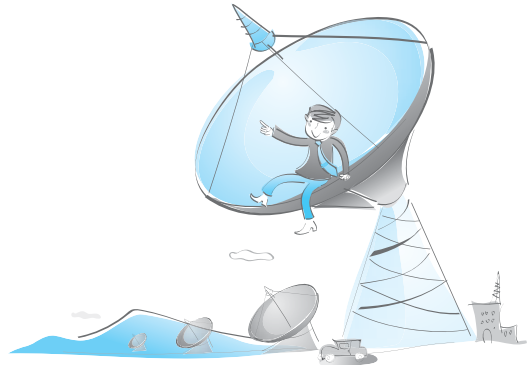
용공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자기소개서에 ‘NCS 직무능력기술서’를 쓰도록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과 능력을 쓰도록 했다. 여기에 나의 청년인턴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마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또한 NCS 기반 면접 역시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단지 서류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면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께서는 회사에 지원한 동기를 물으시면서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쌓은 노력을 말해 보라는 질문을 하셨고, 나는 당당히 청년인턴 경험을 말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돌이켜 보면 후회되는 점과 아쉬웠던 점도 남는다. 우선, 정부 정책으로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청년인턴제도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혹은 부서에 따라 ‘어차피 떠날 사람’으로 대하며 많은 업무 기회를 주지 않고 잡무만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한 심각한 청년실업 시대에 청년인턴 경험마저 하나의 스펙으로 변화하면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 지적되기도 한다. 경쟁 심화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인턴제도는 이른바 ‘고스펙’의 사람들이 또 다른 스펙을 위해 찾는 수단보다는 다양한 청년에게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5개월 동안 정든 회사를 떠나면서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에서 MBS 발행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하면서, 공사가 발행한 MBS가 예탁되는 과정에 이르면 가끔 내가 청년인턴으로 일했던 한국예탁결제원을 떠올린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덜컥 지원하여 사회 초년생 생활을 처음 접할 수 있었던 청년인턴 생활은 내 삶에서 유익했던 경험으로 남아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증권사 직원분의 질문에 이제는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글을 맺는다. 

V

지역인재
채용



1

취업이라는 열매를 만든 물, 공공기관 지방이전

김○○/한국남부발전

나의 취업준비

안녕하세요. 1년 반의 취업준비 기간이 지나고, 이번 8월 한국남부발전(주)에 취업 성공한 김○○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취업난을 겪고 있었던 취업준비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1월, 4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 방학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이번에 취업하기까지의 지원서를 세어 보니 50개가 넘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 정도 양의 지원서는 기본이라고들 합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50~100개 정도의 지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4학년 1학기 때는 꼭 가고 싶었던 한국전력공사와 발전회사에만 지원했고, 취업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점 조금해지는 마음에 4학년 2학기 때부터는 대기업, 공기업 가리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대로 술술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졸업자보다는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듣고, 졸업유예를 결정하여 학교에 남아 취업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학기는 아주 바빴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을 바꿨더니 신기하게도 서류전형을 많이 통과했고, 그렇기에 시험을 치기 위해 거의 매주 서울에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전형인 인·적성검사와 NCS는 또 다른 벽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NCS 스테디를 해왔지만, 문제 푸는 속도를 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때 들었던 생각이 ‘어렸을 때 책 좀 많이 읽을걸...’라는 후회였습니다. 정말 살면서 후회라곤 안 하고 사는 편이었는데 취업이 힘들어지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6월까지 지나간 후, 마음을 고쳐먹고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임해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제가 가고 싶은 회사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처음 마주하게 된 회사가 한국남부발전(주)이고, 조바심을 내지 않으면서 차분히 준비한 결과 1년 반의 취업 준비생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취업준비생의 애로사항

제가 이렇게 1년 반의 취업준비 기간에서 경험한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비입니다. 학교는 부산이고, 집은 김해이다 보니 서류에 합격해서 시험 치러 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회사가 서울에서 시험을 쳐야 했기에 살면서 서울을 갔던 횟수보다 취업준비 기간 동안 서울을 더 많이 갔고 돈도 그만큼 많이 썼습니다. KTX 같은 경우는 왕복 12만 원 돈이고, 무궁화호 열차와 버스로 왕복 6~7만 원, 숙박하게 되면 숙박비는 따로 들고, 이렇다 보니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써야 했습니다. 최대한 싸게 다니기 위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도 알아보면서 돈을 아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남 쪽으로 가면 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숙박은 이태원 쪽에 찜질방 싹곳을 알아내어 거기서 자면서 숙박비도 아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취업준비한다는 말로 용돈을 받아가며 생활하는 저에게 있어 이 돈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틈틈이 단기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마련하면서 취업준비를 했지만, 정말 준비를 못 했을 경우에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지방에 살며 취업준비를 하는 저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부담입니다.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KTX를 제외하고는 4시간이 넘다 보니 왕복으로 따지면 너무도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스에서 책을 보면 멀미를 하기 때문에 주로 잠을 자는 편이지만, 2시간 정도 자고 나면 더는

잠도 안 오고, 멍한 상태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가 통째로 지나가 버립니다. 심지어 오전 이른 시간에 시험이 있는 경우는 시간이 애매해서 전날 가서 숙박해야만 했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하루 이틀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방민인 저에게 있어 불리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책값, 스터디 비용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취업준비생이 취업스터디를 합니다. 각종 취업카페를 통해 스터디 원을 모집하고, 스터디 룸을 빌려 매주 스터디를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풀기 위한 책들을 구매하거나 각자 더 필요한 책들을 사기 위해 돈을 씁니다. 저 또한 스터디그룹에 들어가고, 취업준비 기간 동안 몇 십 권의 책들을 사고 풀고 하며 비용을 썼습니다. 한 권에 이만 원 정도 하는 책들을 그냥 무작정 사서 풀기엔 너무 큰 부담이었고, 스터디 원이 돌아가면서 책을 사서 제본하면서 돈을 아끼고자 노력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취업준비를 하면서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빠듯한 상황 속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끼친 영향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그 지역의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도움을 주었고, 저는 이 가산점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산점제도와 지역인재 할당을 통해 지방의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점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시험을 치르는 장소가 서울이 아닌 지방 쪽인 경우도 있었기에 비용과 시간 모두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것 이외에도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각종 봉사활동, 기부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 MOU 체결 등으로 지방대학과 교류를 하면서 회사와 대학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은 지역사회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이렇듯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너무나도 힘이 되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이 지원군을 이용하여 제가 그랬듯 지방에 있는 취업준비생들도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

모든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도서관에 더 많은 취업 자료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책값이 많이 드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직무역량평가 제도의 개선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직무역량평가 기준이 있지만 그것과 공공기관에서 치르는 직무역량평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학생들이 그 회사와 관련된 서적들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을 관리·감독하거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장실습제도의 활성화입니다. 학교만 다닌 학생들에게 회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실습을 하면 회사에 가서 일은 하지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다 보니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금으로 현장실습제도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회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모든 취업준비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제가 1년 반이라는 짧지만 긴 기간 동안 정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항상 저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첫째, “고민하지 마라”입니다. 고민이 아예 필요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고민 하나가 또 다른 고민을 만들고, 그 고민의 수가 점점 커

저 본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는 고민의 96%가 쓸데없는 고민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취업준비 기간 동안 항상 고민이 많아지려고 할 때마다 저 말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고민으로 인해 우울해지거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쓸데없는 고민들로 시야를 흐리지 말고, 당장 눈앞에 놓인 목표를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조급해하지 마라”입니다. 저 또한 기대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친척들, 먼저 취업한 친구들을 보며 나도 빨리 취업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긴장도 많이 하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조급함이 저에게 있어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 조급함을 버리기 위해 가까운 곳에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취업하면 해야지 했던 것 중 하나인 여행을 하며 조급한 마음을 털어낼 수 있었고, 그 이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취업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서 조급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회사에 지원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다음이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떨어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 또한 많은 회사에 떨어지면서 힘들었지만,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주)에도 1년 반 동안 세 번 지원했고, 마지막 세 번째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모두 발맞춰 앞으로, 지역인재의 성장은 이제 시작

이○○/한국주택금융공사

문제는 실력이 아닌 정보력

경제학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역선택이라고 종종 들곤 합니다. 역선택은 간단히 말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하여 자신이 본래 의도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역인재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여러 이유에서 지역인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본사가 수도권 및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인재의 경우 먼저 입사한 지인 또는 학교 선배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기 힘든 여건입니다. 둘째,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 역시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선 드물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인재들의 경우 공공기관 취업과 함께 비싼 물가 및 주거비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했으며, 수도권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그 관심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역인재들의 노력 부족입니다. 공공기관 입사를 생각하면 명문대 출신 또는 장기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했거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가 아니면 도전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서울권 지역에서 활성화된 공공기관 관련 스터디 및 취업활동과 달리 지방지역에선 한정적인 업군(금융, 유통)의 스터디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인재가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의 세 가지 이유는 단순히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정보의 접근성 및 비대칭성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4년 공공기관 본사 지방이전 정책 실행으로 접근성 및 비대칭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지방이전으로 얻은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본사 이전을 완료한 이후 모든 공공기관들은 성공적인 지역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시작으로 시민들을 위한 금융특강, 채용박람회, 공공기관 견학 그리고 특별 박물관 및 전시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땀 흘리며 공공기관에 대한 기존 지역인재들이 가진 인식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지역인재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 등 해당 정보를 습득하기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자신과 멀게만 느껴졌던 공공기관에 나도 입사할 수 있고 정말 입사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측면에선 공공기관 취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금융, 대기업 또는 이공계에 치중된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내행사 및 캠페인 진행으로 학생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통한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노하우를 전수해 공공기관 취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측면에선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본사가 이전된 지역의 경우 기본적인 교통, 교육, 주거 그리고 문화 등 생활여건이 잘 구축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잠시 머물고 다시 연고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지역에 새롭게 터전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비층의 유입으로 따라 지역 상권 역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봉사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금융특강 등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의 발판이 된 청년인턴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공공기관들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인재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혜택을 받아 작년 5개월간 금융공기업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금융과 관련된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싶었으므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는 당시 다양한 활동과 함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제가 무엇이 부족하고 더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비수도권 전형으로 채용된 인턴 동기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기에 인턴 활동 이후 공공기관 취업 스테디를 만들고 함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동기들이 현재 공공기관이나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취업 과정 중 공공기관의 경우 입사지원 시 경험한 애로사항은 전무합니다. 탈스펙화라는 최근 경향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이 입사지원 시 어학 능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를 제시하라거나 재학중인 학교를 기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사 후 지금까지 동기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저 역시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흐름과 다르게 자신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스펙을 입사지원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남기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 특정 능력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지원자는 이를 증빙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턴 채용의 높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한 번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기간이 짧아 담당 업무에 깊게 관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곤 했습니다. 청년인턴이 아닌 정규직 신입사원의 경우라도 회사를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청년인턴의 경우 회사 및 부서 업무에 적응할 때쯤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제도는 상시적 청년인턴채용입니다. 이는 현재 청년인턴의 경우 인사부가 주관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인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이를 특정 팀 또는 부서에서 청년인턴이 필요한 경우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진행해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필요한 부서가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제도는 몇몇 공공기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기간에 맞춰 뽑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제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인력 수요가 없는 팀 또는 부서에는 청년인턴을 배치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맞춰 인력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팀에서 진행하는 단기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기간 특정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인턴들이 근무 기간에 단편적인 업무가 아닌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개월이란 고정된 기간이 아닌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으로 다양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와 회사 둘 다 만족하는 기간과 조건으로 고용이 가능해 그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청년취업, 민간·정부 및 기관이 함께 발맞춰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습은 마치 ‘3인 2각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맞추지 않는다면 균형이 깨져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청년실업과 관련해 서민들이 불만과 개선사항을 열심히 요구하더라도 혼자만의 외침이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도 서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발이 어긋나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이후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청년 실업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기관 그리고 민간이 모두 노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3인 2각 달리기는 서로가 한 번 발을 맞추게 되면 점차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세를 살려 앞으로 쪽쪽 뻗어나가 근본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3

나는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냈다

박○○/한국동서발전

2번의 졸업유예를 하고 2014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추었고 정규직 전환은 안 됐지만 재학 중 대기업에서 인턴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늘구멍 취업문이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집으로 내려가 취업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전형부터 통과가 쉽지 않았고 그럴수록 더욱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업정보나 주변 환경이 부족한 지방에서 경쟁력 있는 스펙을 쌓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취업준비를 하였고 2015년 한국동서발전 하반기 채용형 인턴에 합격하여 2016년 3월 31일부로 정규직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취업을 준비했던 과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 취업카페 활용해 채용공고 분석하기

취업준비생이라면 제일 먼저 인터넷 취업카페에 가입을 하고 또한 여러 곳의 취업카페에 가입을 합니다. 저도 5군데의 카페에 가입을 했었는데, 저는 카페에서 목표하는 회사의 3개년 채용공고를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3년 정도의 공고를 분석하면 대략적인 채용일정이나 채용 프로세스들이 파악이 되고 이에 맞춰 공부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용이합니다.

저는 에너지공기업 입사가 목표였는데 과거 공고들을 분석했더니 전공 기사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취득해야 할 자격증의 시험과목이 총 5과목이었는데 그 중 제가 학교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전공자격증 관련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거기에서 자료를 얻고 모르는 문제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카페에 질문을 올려 해결을 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까지 카페의 도움을 받아 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적 소외로 인한 어려움을 인터넷 커뮤니티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회사의 입사시험에 응시해보기

목표하는 기업의 입사시험이 아닐지라도 타 회사의 입사시험을 응시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입사를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개 공기업은 직무능력 평가로 NCS 시험과 더불어 전공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전공시험을 준비할 때 방대한 양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회사의 전공시험을 쳐보면서 공부해야 할 부분의 범위를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놓쳤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시험고사장이 서울이라 금전적인 부담이 컸었지만, 힘들게 통과한 서류전형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매번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 거주자가 취업준비를 할 때 겪는 가장 큰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준비는 먼저 취업한 학교선배들에게 부탁

필기시험까지 합격을 하고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준비할 때 또 한 번 지방 거주자로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보통 면접대상자 발표가 나면 취업카페에는 면접스터디를 모집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스터디마저 서울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변에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취업한 학교 선배들에게 모의면접을 부탁하며 준비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

제가 한국동서발전을 알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진행한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설명회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회에서 지역인재 채용 전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전형은 상대적으로 취업에 소외된 지방대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교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생들에게 직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는 울산화력에 학교 후배들이 체험형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직장예절과 직무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험형 인턴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태풍 차바의 복상으로 인해 울산지역의 피해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동참하여 수해현장을 직접 찾아가 복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전통시장 방문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봉사나 도움은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채용채널의 다양화

지역인재채용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방 우수인재 유치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 채용의 프로세스는 직무능력검사를 기반으로 전공시험, 면접입니다. 그러나 직무능력검사나 전공시험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채용채널의 다양화입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 주변의 대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 예정의 일부 인원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선발과정에는 직무능력을 연관하기 위한 이수과목 내역, 성실도 평가를 위한 학점, 대외활동 등 다양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실한 대학생활만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 불필요한 스펙쌓기로 과열된 사회 분위기를 가라 앉히는 데도 점차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수기공보 우수 사례집

시간선택제 일자리 · 직무능력중심 채용 · 고졸채용
청년인턴 · 지역인재 채용

2016년 12월 23일 인쇄

2016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 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인쇄 상일인쇄(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